Weekly 공감
2011.08.31 NO.124
gonggam.korea.kr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Daegu
우리 곁의 사회적기업
'따뜻한 공생'의 씨앗이 무럭무럭 P31~47
"4대강살리기 비결 배웁시다"… 외국서 벤치마킹 줄이어 P12~15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新실크로드' 열다 P6~11

간첩, 좌익사범,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

사회적기업 생태계 만들자

조선DB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심만큼이나 사회적기업 분야의 외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7월 현재 5백5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1천여 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유급근로자도 2007년 2천5백여 명에서 1만3천여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민간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을 높은 사회적 임팩트를 지닌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SK, 포스코, 현대자동차, 교보생명, 삼성 등 대기업들은 설립지원에서부터 프로보노(무료경영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사회적기업 연구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기업이며,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환원되거나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환원되거나 재투자된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형성, 자본조달 확대, 경영능력 향상, 우호적인 사회인식 등 생태계 구축에 좀 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기능을 함으로써 자선적 접근방식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시민사회의 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윤리적 시장을 촉진하고 여성이나 청년 등 신규 창업을 독려하기도 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6만2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이 매출규모(약 50조원)와 고용규모(전체 유급근로자의 5%)에 있어서 의미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장이나 인프라 지원보다는 인건비 지원을 수단으로 한 초기 육성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정부 재정에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이 자신의 긍정적 사회 경제적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무엇보다도 시장 형성, 자본조달 확대, 경영능력 향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사회인식 등 생태계 구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

Contents NO.124 2011.08.31 통권 225호

기획특집

사회적기업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기업이지만 이익창출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법니다. 흔히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기보다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새터민 등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따뜻한 사회, 따뜻한 공생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립기반이 한층 단단해질 때 우리 사회의 체온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표지 이야기 쑥! 쑥!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생발전의 씨앗이 자란다. '공공미술프리즘'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사진 · 염동우 기자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8.3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20

48

50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 기대

"123호 이슈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따져 부과한다' 기사를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고, 같은 직장 가입자라고 해도 직장 소득만 있는 경우와 별도의 소득이 더 있는 경우가 같은 조건으로 부과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고려해 종합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니 재정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장명화 (경남 양산시 소주동)

세계 속 젊은 CEO들의 활약에 뿌듯

"123호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제2의 스타벅스 꿈꾸는 대표 조성훈씨'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조성훈씨를 통해 꾸준한 자기계발과 자신감, 열정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G20세대 희망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 온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는 젊은 CEO들의 활약상을 더욱 기대합니다."

강창규 (대전시 중구 목동)

고졸 취업자들 보고 희망 얻어

"122호 기획특집 '성공인생 가는 길에 학력차별은 없다' 기사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특히 공서영 아나운서가 고졸 학력이지만 스스로 노력해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원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소개도 있어 현실적인 희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더욱 높아졌으면 합니다."

이유성 (광주시 북구 운암1동)

독도에 대한 중립적 시각 필요해

"122호 핫이슈에 실린 '동해 명칭 일본해 단독 표기 가능성 낮다'를 읽고 가슴속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우리 국민이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자격투기선수 임수정 사건과 일본 독도방문 강행, 한일전 축구경기를 비롯해 한일 간에 많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아닌, 중립적인 시각으로 차분히 사건을 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공감카툰'으로 환자들에게 긍정 메시지 전파

"저는 아픈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거리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치료 기간은 지루하고 힘겹습니다. 122호 공감카툰 '같은 맨발, 다른 생각'을 보고 병원에서 지내시는 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 병원 게시판과 복도, 화장실 등에 붙였습니다. 만화를 본 많은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며 치료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카툰이 실려 우리 병원 식구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순자 (경남 진주시 상평동)

이 기사, 아쉬워요

"용어에 대한 설명 덧붙여 주세요"

122호 기획특집 '성공인생 가는 길에 학력차별은 없다' 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고졸 캐릭터' 기사에서 '페이소스, 카타르시스'와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기사를 읽는 데 계속 흐름이 끊겼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창환 (군인 · 전남 목포시 산정동)

"고졸 할당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취업난 속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불안함이 많은 찰나, 122호 학력철폐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공사나 민간기업의 고졸 할당제에 대한 기사를 반갑게 읽었지만 고졸 할당제가 무엇인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취업 사례도 일반고 졸업자들의 채용이야기도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송혜림 (대학생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 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서로 도우며 함께 삶. "이명박 대통령은 'OO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고졸자 취업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발전, 물가안정, 서민 주거비 경감 노력 등을 다짐했다."
3. 환자를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드는 것. OO인.
4.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그 학생의 성적이 OOOO으로 올랐다."
7. 경치가 빼어나거나 유적 등이 많아 구경하기 좋고 쉬기 좋은 곳.
8.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죠.

세 로

1. 다 함께 쉬는 날.
2. 초소를 지키는 병사.
3.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쓰는 액체. 메주를 띄워 만들죠.
5. 마라톤 같은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던 관.
6. 장애물 경주나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에서 뛰어오른 후 땅에 닿는 지점.

〈Weekly 공감〉 122호(8월 1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장인 **2** 손가마 **3** 삼합 **4** 광복 **5** 이구동성
세로 **1** 장마 **2** 손님맞이 **3** 삼복 **4** 광합성 **6** 동해

〈Weekly 공감〉 12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이슬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고대현 · 경북 안동시 옥동
이새롬 · 전북 임실군 청웅면
장선균 · 충남 예산군 오가면
표세명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알 림

제5기 미소국가대표를 모집합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대한민국 미소국가대표 5기를 모집한다. 미소국가대표는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미소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는 환대서비스개선 서포터즈이다. 국내외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생활 속 환대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및 실행, 한국 방문의 해 주요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매월 미션 수행 및 블로그 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 | 9월 8일까지
활동 기간 | 2011년 10월~2012년 2월(5개월)
선발 인원 | 50명(우대사항-외국어 회화 가능자, 온라인 파워 블로그 운영, UCC제작 경험, SNS 활용 가능한 자)
지원 방법 |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내려받은 후 온라인 접수
활동 혜택 |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상장 및 상금)

한국방문의해위원회 www.visitkoreayear.com ☎ 02-720-7325

발명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초·중·고 발명장학생(제9회)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은 발명교육 수료, 발명대회 참가 및 수상,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의 발명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서류평가와 발명활동 의지, 지식재산권 창출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는 관찰수행평가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장학생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백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기간 | 9월 16일까지
선발 대상 | 초·중·고교생은 각 학교당 5명 내로 학교장 추천
재학생이 아닌 경우 자기 추천 및 학부모, 지도교원 추천
지원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메뉴의 '발명장학생' 클릭해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135-98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원 혜택 | 발명장학생 증서 및 창의발명캠프 참가 기회 제공(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02-3459-2749

연합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수도 아스타나의 대통령궁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몽골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3개국 순방

실질협력 확대로 新실크로드 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각국과 자원 · 에너지, 환경, 보건, 인적교류, 경제 ·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1억6천만 달러, 카자흐스탄에서는 8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사업을 수주했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초원 야르막 덴즈에서 가진 환송행사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한·몽골 정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
초원에선 이 대통령 위한 환송 행사… 낙타 타기도

8월 2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몽골의 성산인 복드칸산 남쪽에 있는 이태준기념공원을 찾았다. 이 공원은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태준 선생(1883~1921년)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건립됐다. 세브란스병원 의학교(현 연세대 의과대학)를 졸업한 이태준 선생은 1914년 몽골에 들어가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개설, 몽골인들에게 근대 의술을 베푸는 한편,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연계하여 항일 활동을 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태준 지사 추모비에 헌화한 후, 한·몽골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종사하고 있는 양국 관계자 40여 명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태준기념공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 몽골 방문, 더 나아가 중앙아 순방외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 간 협력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같은 날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몽골의 민주주의 강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특히 인프라·보건·정보기술·대기오염 감소 등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원조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기존의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중기 협력 지침을 규정한 '한·몽골 중기행동계획'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또 국립검진치료센터 설립 사업을 양국 간 공적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몽골을 떠나는 8월 23일 오전 울란바토르 근교 야르막 덴즈 초원에서 극진한 환송행사를 열었다. 나담(Naadam) 축제(매년 7월 11~13일간 말타기, 전통씨름, 활쏘기 등 세 종목의 경연을 벌이는 몽골의 국가적 축제)를 축소 재현한 미니 나담 축제를 연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권유로 낙타 등에 오르기도 했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김을중 한국택견협회 우즈베키스탄 지부장(오른쪽)으로부터 선물받은 쿠라쉬 도복을 살펴보고 있다. 쿠라쉬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무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카자흐스탄을 꽃다발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곳곳에 환영 한글간판 세워
매년 만나는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우정 재확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님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친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번째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시내 곳곳에는 이런 환영의 글이 적힌 대형 간판이 설치됐다. 청와대 측은 "외국 방문 시 양국 국기와 광고판을 설치한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이런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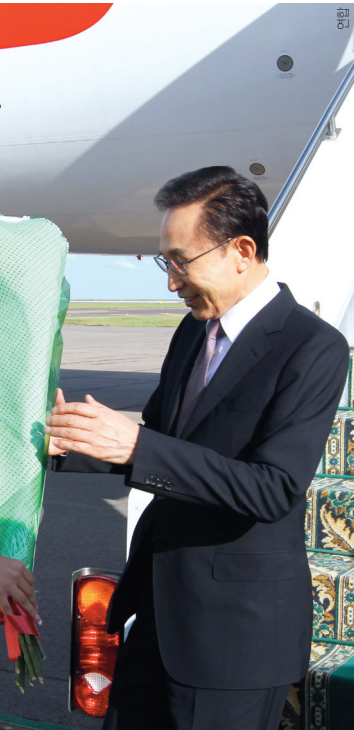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8월 2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관계자 격려 행사에 참석, 문화·스포츠·한식·한국어 보급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과 고려인,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냉전시대에 모국의 언어와 문화로부터 단절된 여건 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고려인들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민 및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수학 중인 차세대 우즈벡인들이 양국 간 교류 증진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3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두터운 정의(情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처음 만났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7년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만남을 가져왔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별장에 초대
4시간 동안 비공식 만찬 베풀며 친밀감 과시

이번 중앙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깬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8월 25일 예정에 없이 이 대통령에게 아스타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다차(별장)에서 오후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방문해 아스타나 국제공항에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밤 출국하는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 기왕이면 공식 오찬과 같은 의례적인 행사를 생략하고 정상 간에 '속 깊은'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오전 공식 환영식에 이어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나머지 행사는 총리 등에 맡긴 채 곧바로 별장으로 향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위해 4시간 가량의 비공식 만찬을 베풀었고, 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구석구석을 다니며 직접 대통령궁을 소개하는 등 남다른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시에도 '사우나 회동'을 갖는 등 파격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현 러시아 총리) 등 극소수 인사들에만 '사우나 회동'을 제안한다고 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8월 2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4년 동안 4번이나 만났다"면서 "이 대통령의 배려로 우리 두 나라의 경제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3년 동안 양국 경제 협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날 양국 기업 간 체결한 이티라우 석유산업단지 건설을 언급하며 "양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친분을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규모 진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의 산업혁신 계획에 한국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산업 다변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옥 여사는 8월 25일 아스타나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한류에 매료된 카자흐스탄 젊은이 20여 명과 만나 한류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카자흐스탄 학생들은 김윤옥 여사에게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빅뱅,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2NE1 등의 한국 가수들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가 TV에서 동시에 3~4편씩 방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익힌 한국어(인사말), K팝, '아리랑' 연주 및 민요 부르기 솜씨 등을 선보였다. G 글·배진영 기자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발전 기틀 다져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서 모두 1백24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수주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몽골에서는 '에너지 자원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1억6천만 달러(약 4조5천억원) 규모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발하쉬화력발전소 건설,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82억5천만 달러(약 9조7백억원) 규모의 자원·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2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광물·에너지·인프라·건설·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의 확대와 항공노선 공급 확대에 합의했다. 한국·몽골 정상은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사막화·건조화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등 다자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녹색성장·조림·수자원 및 환경 복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MOU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했다.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등 계약 4건 서명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은 총 41억6천만 달러(약 4조5천억원) 규모의 수르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한·카자흐 발하쉬 석탄화학단지 건설 금융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수르길 프로젝트는 가스공사·호남석유화학·STX에너지 등이 우즈벡국영석유가스공사(UNG)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 등을 공동 개발하고, 그 인근에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양국 관계사들은 8월 23일 건설계약에 서명했으며, 올 하반기 중 금융협약서 체결 및 파이낸싱을 완료하고 내년 초 가스화학플랜트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8월 23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산업·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EPC) 관련 계약(4건)' 등에 서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위원회와 증시정보기술(IT)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맞춰 ▲배전손실 감소 및 자동검침 시범사업 ▲도시계획 지리정보 훈련센터 지원사업 ▲시범온실 지원사업 ▲타슈켄트 2개 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등 4개 무상원조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8월 24일 양국정상과 경제인 1백50여 명이 참석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우즈베키스탄 희유금속 MOU' 등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정부 간 협정 체결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총 82억5천만 달러(약 9조7백억원) 규모의 자원·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8월 25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후, 지식경제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기술부는 한·카자흐스탄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발하쉬 호수 남서부 연안에 1천3백2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지난 8월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스튜르트 가스화학단지 초석 제막식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다.

다. 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전체 지분의 각각 35%를 가지고 참여한다.

LG화학도 카자흐스탄석유화학(KPI)과 공동으로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사업계약서를 체결했다.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사업은 카스피해 연안의 텡기즈 유전에서 생산된 에탄가스를 분해해 폴리에틸렌(연산 80만톤)을 생산하는 석유화학플랜트를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티라우 유화단지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은 KPI의 모회사인 UCC와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대전 대덕연구단지는 '한·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설립·운영 협약'을 카자흐 국가혁신펀드와 맺었다.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사업의 규모는 총 80억 달러(약 8조8천억원)에 달한다.

코오롱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등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1백 기를 건설해 운영하는 2억5천만 달러(약 2천7백억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카자흐스탄거래소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 증시 현대화 사업을 정식으로 수주할 경우, 동남아 지역 위주로 추진되던 증시인프라 수출사업을 중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

글·배진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 순방외교 경협 성과

국가	경협내용
몽골	▪ **양국 정상회담 후 협정 서명(2건)** –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몽골 보건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간 약정서 – 광물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우즈베키스탄	▪ **양국정상회담 후 협정 서명** – 한시적 근로협정 – 산업·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 –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건설(EPC) 계약 ※ 수르길 프로젝트 : 41억6천만 달러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 – 한-우즈베키스탄 희유금속 MOU 등 7건의 양해각서 체결 ▪ **한국거래소-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위원회** – 증시정보기술(IT) 시스템 수출 계약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무상원조사업시행 약정** – 배전손실 감소 및 자동검침 시범사업 – 도시계획 지리정보 훈련센터 지원사업 – 시범온실 지원사업 – 타슈켄트 2개 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카자흐스탄	▪ **양국 정상회담 후 협정 서명(4건)** –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정부 간 협정 –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관련 합자계약서(LG화학/UCC 및 KPI) –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관련 금융협력 MOU (수출입은행/UCC 및 KPI) – 한-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설립·운영 협약 (대덕특구지원본부/카자흐 국가혁신 펀드) ※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 40억 달러 ※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 40억 달러 ▪ **코오롱 CNC(압축천연가스)충전소 건설·운영사업계** : 2억5천만 달러 ▪ **한국거래소- 카자흐스탄거래소** – 컨설팅서비스 제공 MOU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몽골에서 온 언론인들이 지난 8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여주군 당남리섬을 둘러보고 있다. 당남리섬은 상습침수지였으나 레포츠 공간으로 변신했다.

"물관리 노하우 배우자"… 해외서 큰 관심

4대강 현장방문 줄이어… 물부족·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응사례로 벤치마킹

기후변화와 물부족이란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발길이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통해 선보이는 다기능 가동보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 물관리시스템 등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물관리 사례로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당남리의 당남리섬에 멀리 몽골에서 온 손님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몽골의 일간지 〈우누두르(Unuudur)〉 기자와 민영방송사인 'MN 25 Channel TV' 제작진 등 총 7명의 몽골 언론인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8월 22일)에 앞서 취재차 한국에 온 이들은 지난 8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시원스레 당남리섬의 자전거길을 내달렸다.

당남리섬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였으나 4대강살리기를 통해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레포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몽골의 경우 다리 하나를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 4대강살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데 비해 단기간에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당남리에 오기 전 인근 단현리의 강천보 현장을 먼저 방문했던 몽골 언론인들은 당남리섬 인근의 이포보 등 자신들이 둘러본 4대강살리기의 규모에 놀라워했다.

몽골언론 "쓸모없는 땅의 녹색공간 변신 놀랍다"

이들의 방문 무렵 한강살리기 공정은 약 90퍼센트를 마친 상태였다. 몽골 언론인들은 특히 쓸모없는 땅에서 수변공원으로 변신한 당남리섬에 감탄했다.

"방치되어 있던 당남지구와 당남리섬을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 향후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될는지 관심이 많이 간다."

이들은 자신들을 안내한 4대강살리기 관계자들에게 자주 홍수 피해를 입던 여주 지역에 3개의 보가 들어선다는 설명을 듣고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몽골 언론인들은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보 건설 양식과 역할, 기대 효과 ▲수변공간 조성 현황 등을 취재했다. 당남리섬 자전거도로 체험도 이들의 취재 일정의 일부였다.

1996년 9월 창간된 〈우누두르〉는 발행부수 1만2천 부의 몽골 최대 신문이다. 'MN 25 Channel TV'와 함께 '몽골 뉴스 그룹(Mongol News Group)' 소속이다. 이 그룹은 일간지 〈우누두르〉 외에도 스포츠 신문과 영자신문, 잡지, 영화 스튜디오 등을 소유한 몽골 최대의 미디어 회사다.

지난해 11월 5일에도 몽골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청 공무원 20명이 강천보 건설현장을 방문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들은 여주대가 주관하는 6주 과정의 '2010 몽골 도시지역 개발전문가 과정' 참가차 방한했다.

모로코 국왕고문 "물부족 해결에 4대강 정책 반영"

이번에 방한한 몽골 언론인들은 완공을 눈앞에 둔 4대강살리기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4대강살리기 현장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외의 관심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자원 관련 공무원이 4대강살리기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일에는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차 방한한 중국의 차오스산 순시원(우리나라의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 등 8명의 중국 수자원 담당자가 이포보와 여주보, 강천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4대강살리기는 특히 우리와 비슷하게 기후변화와 물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물관리에 관한 일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모로코의 오마르 카바즈 국왕고문 등 모로코 정부관계자 10여 명이 방한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현장을 찾은

연합

지난 5월 오마르 카바즈 모로코 국왕고문(가운데)이 경기도 여주군의 한강살리기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것도 4대강살리기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모로코의 물관리 사업에 관한 롤모델로 삼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카바즈 고문을 비롯한 수자원환경국무장관, 농수산부장관 등 모로코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이포보, 강천보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수자원 관리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카바즈 고문은 이날 4대강살리기 현장을 둘러본 뒤 "모로코는 물부족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4대강살리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같이 물부족 국가군에 속하는 모로코는 연 강우량이 북부지역 1천밀리리터, 남부지역 2백3밀리리터 정도이며, 특히 남동부 사하라 사막 지대는 남부지역 강우량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식수와 용수난이 심각하다.

또한 모로코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 홍수를 유발하고, 또 대부분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사하라 사막에서 증발되기 때문에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오염된 클랭강 복원 위해 사례연구

말레이시아의 물 전문가 20여 명도 지난 5월 11, 12일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4대강살리기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이 4대강살리기 현장과 더불어 청계천 등을 찾은 것도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해 말레이시아의 클랭강 복원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말레이시아 클랭강은 셀랑고주 및 쿠알라룸푸르시를 지나는 강으로,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오염이 심각하다. 총 길이 1백20킬로미터에 4급수 수준의 수질을 갖고 있다. 클랭강이 지나는 셀랑고주와 쿠알라룸푸르시엔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백만명이 사는데, 이 강을 식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기에 지난 4월 4~6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나집 빈 툰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도 4대강살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참석차 방한한 팜코이 응웬 베트남 환경장관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외국 정부 인사들의 4대강 현장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2일에는 미시시피강의 범람과 허리케인 피해를 자주 입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주립대 학생 17명이 강천보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수자원관리와 수변개발에 젊은 학생다운 호기심과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G

글·박경아 기자

16개 보 중에서 최고의 보를 뽑아주세요

4대강살리기 16강전 이벤트 실시

"내가 선택한 보(洑)가 우승할 수 있을까?" 4대강에 있는 16개 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인기투표가 시작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8월 21일, 16강전을 시작으로 8강, 4강, 준결승, 결승으로 이어지는 '4대강 살리기 16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대강에 있는 16개 보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상징적 구조물이다. 이번 이벤트는 이들 보를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하는 대국민 인기투표의 일종이다. 참여자는 주어진 2개의 보 가운데 마음에 드는 1곳을 우선 선정한다. 이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가장 호감도가 높은 보를 최종적으로 고르게 된다.

'4대강살리기 16강 이벤트'에 올라가는 16개 보는 ▲한강의 이포보·여주보·강천보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죽산보 ▲낙동강의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달성보·창녕합천보·함안창녕보 등이다. 이들 16개 보는 오는 10월 중으로 최종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벤트는 4대강살리기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badailki)에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당첨자는 오는 9월 30일 발표하는데, 이벤트 기간 중에는 매주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운상도 주어진다.

당첨자에게는 고급 텐트(1명), 디지털 카메라(1명), 고급 자전거(3명), 스포츠웨어 교환권(10명), 야외용 고급 돗자리(30명), 파리바게뜨 기프티콘(80명) 등의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 라운드 보에 진출한 이벤트 참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16개 보가 해당 지역의 풍경과 지리, 역사, 문화적 특색을 고려해 각자 개성 있게 설계된 점과 '다기능 보'로서의 역할 등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변화된 4대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강살리기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문의 전화는 '4대강살리기 이벤트 사무국'(02-320-8893)으로 하면 된다.

"라인강 상류에 홍수방지용 보 10개 있다"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의 4대강살리기 왜곡발언에 국토해양부 반박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 대학 교수가 4대강살리기와 관련해 국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성명을 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12일 한강살리기 강천보 인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는 더 이상 보를 건설하지 않는다 ▲강 주변 제방을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준설로 강이 직선화된다 ▲유럽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 ▲제방을 뒤로 더 물러나게 해 홍수 예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는 또 "한번 미친 짓을 하면 계속 미친 짓을 하게 된다. 4대강 계획은 한낱 자연에 대한 강간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자국과 사정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하천을 겨우 며칠 둘러보고 '자연에 대한 강간' '미친 짓' '재앙 초래' 등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대강살리기 반대단체가 초청한 독일의 하천 전문가 헨리히 프레이제가 '보와 준설로 홍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4대강 준설로 6~7월 장마철 홍수위가 낮아져 주변 침수 피해가 크게 저감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성명 내용이다.

독일은 보 건설 더 안 한다? 이미 보가 있고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라인강 상류 1백65킬로미터 구간(바젤~이퀘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돼 있다. 독일 수로청과 수자원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보가 완성된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철거사례나 계획도 없다.

더구나 독일과 우리나라는 기후와 하천 특성이 크게 달라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독일은 강우가 연중 일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집중폭우가 일상화돼 있다. 수심과 경사, 하천폭 등 하천 특성도 다르다.

강 주변 제방 콘크리트 도배?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한다

과거에는 하천 주변 제방을 관리하기 쉬운 콘크리트만으로 설치한 적이 있으나 4대강살리기는 전체 구간의 94퍼센트가 나무나 풀 등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되고 6퍼센트만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콘크리트로 만든 한강 제방도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민현수자원관리청

독일 이자르 강의 복원 현장 모습.

준설로 강이 직선화된다? 수질 개선이 이뤄진다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지게 된다. 그동안 4대강살리기 반대단체가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4대강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보와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지기는 하지만, 하천변을 정비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노력으로 오히려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

독일과 네덜란드 간 준설토에 관한 협의문(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은 연간 5천만세제곱미터, 네덜란드는 연간 3천5백만세제곱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반대하는 측에서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으로 주장하는 독일의 이자르 강도 복원 과정에서 준설작업을 했다.

제방을 뒤로 빼야 홍수 예방? 저류지와 홍수조절지도 있다

자연스러운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 하천 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 관리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토지 이용의 제한 등을 감안하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일부 지역에 한해 범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4대강살리기도 국가의 재정 범위에서 가능한 일부 지역은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건설을 통해 범람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수급에 최선

물가장관회의, 배추·무 등 가격 지역별 비교 공개로 인하경쟁 유도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농수산물의 경우 신속한 수급안정 등 세심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은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지정해 거래하거나 이들 주유소의 티켓을 미리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달라진 점을 감안해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서 스마트폰 이용료·삼각김밥 등이 추가되고 공중전화 통화료나 전자사전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법인차량 주유 시의 대리인 문제 개선방안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등을 논의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달라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없이 기름을 넣게 되는 문제에 대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대리인 문제부터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은 법인차량 등록지 인근의 최저가 주유소 3개를 함께 선정·공지해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거래하게 하거나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티켓을 구매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공공기관 차량 싼 주유소 지정거래

이러한 개선방안은 8월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으로도 확산을 유도해

조선DB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기름값 안정 방안 등 물가대책을 내놓았다. 농산물의 경우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알뜰한 주유관행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1백15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무관세) 품목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할당관세 수입추천제도는 선착순 또는 전년도 수입실적에 따라 업체별 사전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선착순 이외 방법 추천 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정, 가격급등 등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해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추천을 받아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최근 태풍, 장기간 지속된 집중 호우 등의 피해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8월 소비자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간 서민 체감물가와 서민생활 10대 품목(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장면, 배추, 무)의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해 공개, 지역 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생활 10대품목 가격인하 유도

정부는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개편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도시화, 경제·사회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품목을 재조정한다.

웰빙·건강·여가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 변화, 정보통신(IT) 기술발전, 고령화를 감안해 스마트폰 이용료와 막걸리(외식), 삼각김밥 등을 추가하고 공중전화 통화료와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캠코더 등 디지털기기 발달로 소비가 감소한 품목은 제외한다.

유통산업의 대형화와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조사대상처에 대형 할인점을 확대하고 인터넷 거래 품목도 반영한다. 품목별 가중치는 지난해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음식·숙박비 가중치는 축소하고 주거 및 수도 광열비는 확대한다.

아울러 사과·배·고등어 등 농수산물 조사규격도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격으로 현실화한다. G

글·박경아 기자

"추석을 즐겁게"… 체불임금 청산 나선다

9월 9일까지 전국 47곳에 전담반 설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찾을 고향 생각에 벌써부터 흐뭇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무색한 이들도 있다. 고향에 내려갈 형편이 안돼 그리움으로 귀향을 대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 7월 31일까지 모두 6천1백7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탓에 15만5천4백64명이 고통을 당했다. 이 가운데 53.9퍼센트인 3천3백28억원은 정부의 지도로 해결이 됐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2천2백72억원은 사법처리됐고 5백73억원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들어갔다. 8월 22일부터 9월 9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법무부·검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와 신용제재 등 다양한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체당금(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으로 생활고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금지원도 실시한다. 7백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부하고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체당금은 3만3천5백97명에게 1천5백6억원, 생계비는 3천5백85명에게 1백73억원이 지급됐다.

글·변형주 기자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 ☎ 1350
생계비 대부제도 근로복지공단 ☎ 588-0075
무료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명, 억원, 7. 31 현재)

구분	체불발생	처리			청산지도 중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건수	107,929	101,738	71,619	30,119	6,191
근로자수	155,464	145,814	99,306	46,508	9,650
금액	617,389	560,040	332,837	227,202	57,349

출처 고용노동부

일러스트 · 박상훈

‘경찰서 안 술주정’ 엄중 처벌 내렸다

올 7월까지 공권력 비웃는 음주폭력 5백71명 중 85.5퍼센트 구속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던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공권력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연말부터 음주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상습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최근 주취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

#1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8월 23일 술에 취해 주점서 행패를 부린 A(55 · 남)씨를 폭력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고흥읍의 한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술집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16일 동구 신천동 영세상가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B모(62 · 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신천동 담뱃가게 주인에게 공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담뱃가게 손님들 앞에서 상의를 벗는 등 약 30차례에 걸쳐 신천동 일대 영세상가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술을 마시고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린 C모(60 · 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다 이를 말리던 이웃을 폭행했다. 또 이웃에 사는 50대 3급 장애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난동’을 벌여 주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길 가다 한번쯤 목격했음직한 일들이다. 술에 취해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눈에 뵈는 게 없는듯' 말리는 경찰에게까지 멱살잡이하려 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흔한 주취폭력이다. 주취폭력범에 대한 이러한 구속 사례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는 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상습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 대응으로 선회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월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 척결운동을 벌인 결과 주취폭력범 5백71명을 검거, 4백88명(검거의 85.5퍼센트)을 구속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찰의 강력한 주취폭력 대응으로 음주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대학캠퍼스에서 절주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경찰청은 주취폭력이 경찰관 등의 공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고 공권력을 짓밟는 등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전국에서 주취폭력범 전담수사팀(1백82개팀 8백43명)을 편성, 강력한 단속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쌍방입건 관행'도 개선… '맞는 게 상책' 문화 바꿔

주취폭력범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행위'가 73퍼센트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년층'이 7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또 범죄 경력을 보면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상습주취폭력범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간별로 보았을 때 1~4월 2백24명 검거해 1백83명이 구속(81.7퍼센트)된 데 비해 5~7월에는 3백47명 검거에 3백5명이 구속(87.9퍼센트)돼 구속수사가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구속수사를 앞세운 경찰의 강력한 주취폭력 대응 효과는 금세 나타나고 있다. 먼저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줄어들고 있다.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는 2010년 하반기 7개월간(6~12월)의 5천4백20건에서 올 7개월간(1~7월)은 4천9백57건으로 8.5퍼센트 감소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한 결과 늘어난 정당방위 사례 4건 중 1건이 주취폭력을 말리거나 주취폭력에 대항하다 발생한 정당방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7건이었던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한 다음인 3~6월 5백11건(월 평균 1백27건)으로 증가했는데, 5백11건 중 1백21건(25퍼센트)이 주취폭력 관련 정당방위였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일단 '피의자'로 입건해 왔으나 지난 3월부터 이러한 관행을 바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수사해 정당방위인 경우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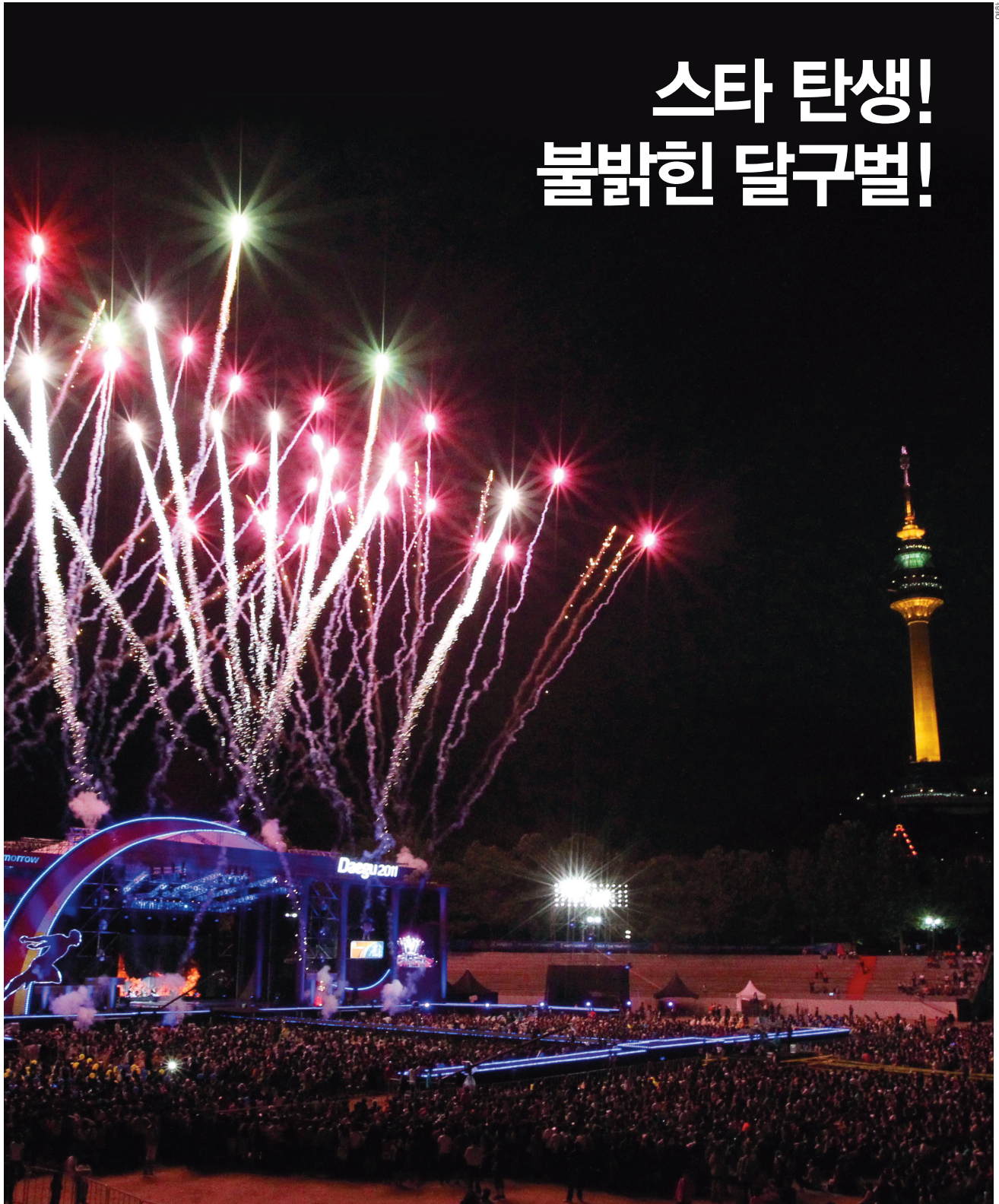
'음주 후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도 옛말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강신걸 경정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사회적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며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영장 발부율이 60~70퍼센트인 데 비해 상습적인 주취폭력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퍼센트에 이른 점에서도 주취폭력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주취폭력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음주문화와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강력한 단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연합

스타 탄생! 불밝힌 달구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구 두류공원에서 쏘아올린 불꽃이 달구벌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일 펼쳐지는 명승부로 대구는 지금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DB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리허설격으로 지난 5월 열린 대구국제육상경기에서 남자 3천미터 장애물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물웅덩이를 건너 질주하고 있다.

3천미터 장애물 **사냥감 쫓는 '원초적 달리기'**

바통터치가 묘미인 400미터 릴레이 · 남녀 높이뛰기도 눈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세계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만큼 볼거리도 풍성하다. 육상 하면 흔히 떠오르는 100미터 달리기나 마라톤 외에도 흥미진진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원초적 달리기에 가장 가까운 3천미터 장애물경기와 바통터치가 인상적인 400미터 계주,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높이뛰기가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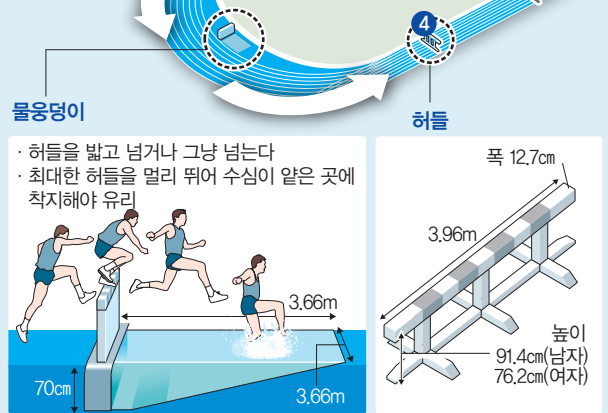
3천미터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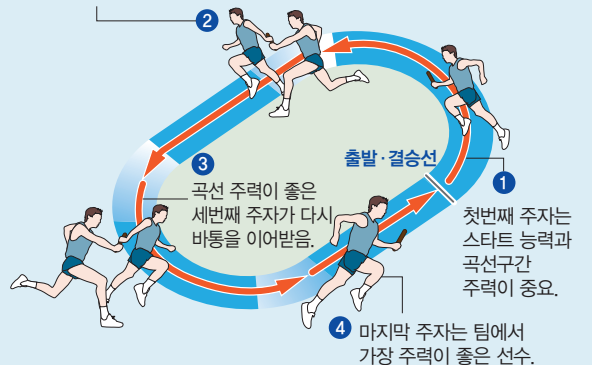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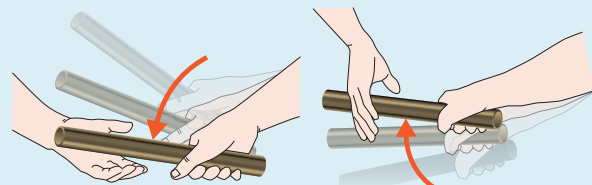
남자 결승(9월 1일 오후 8시25분) **여자결승**(8월 30일 오후 9시20분)

오는 8월 30일(여)과 9월 1일(남) 각각 열리는 '남녀 3천미터 장애물경기(steeplechase)'도 기대를 자아낸다. 3천미터 장애물경기는 '트랙 위의 크로스컨트리'로 불리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다. 맹수를 피해 도망가고, 사냥감을 쫓으며 산과 들을 넘나들던 자연속의 원초적 달리기를 트랙 위에 구현했다.

3천미터 장애물 출전 선수들은 400미터 트랙을 7바퀴반 돌고, 허들을 28번 넘어야 한다. 허들을 밟은 채 뛰어넘는 것도 가능하다. 최대 깊이가 70센티미터에 달하는 물웅덩이도 7번 건넌다. 지구력과 리듬감, 균형감각, 유연성을 두루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초원을 뛰어다니던 아프리카 팀의 강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세계육상에서도 아프리카 케냐의 강세가 점쳐진다. 2009년 베를린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에제키엘 켐보이(29·케냐)는 대구에서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켐보이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었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3천미터 장애물 경기

400m 릴레이

조선DB

400미터 릴레이에서는 바통을 정확하고 빠르게 주고받는 것이 경기성적을 좌우한다.

2003·2005·2007년 3회 연속 2위에 머문 징크스를 갖고 있다.

여자 3천미터 장애물경기의 유력 우승후보 역시 케냐다. 9분12초89로 올 시즌 1위를 기록한 밀카 체이와(케냐)가 유력한 우승 후보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선 굴라나 갈키나(러시아), 2009년 세계선수권 땐 마르타 도밍게스(스페인)가 우승하는 등 유럽세도 무시할 수 없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출전선수가 없다.

400미터 릴레이

남자 결승(9월 4일 오후 9시) **여자 결승**(9월 4일 오후 8시35분)

오는 9월 4일 폐막식 당일 열리는 '남녀 400미터 릴레이'도 흥미진진한 볼거리다. 바통을 주고받으며 4백미터를 뛰는 릴레이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의 이어달리기를 연상케 한다. 400미터 릴레이의 핵심은 바통터치. 4명의 주자가 3번의 바통터치를 하는데, 앞주자가 아무리 빨라도 바통을 놓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길이 30센티미터, 무게 5백그램의 바통을 정확히 건네주고 받는 것이 핵심이다. 20미터의 바통인계구역에서 스피드를 덜 줄인 채 바통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에 비해 체격과 실력차가 나는 만큼 주로 원활한 바통터치에 초점을 맞춰 연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순간 스타트가 뛰어난 선수가 1번, 마지막 스퍼트가 좋은 선수가 4번을 맡는다. 2번과 3번은 각각 직선주로와 곡선주로에 강한 선수가 전담한다. 가장 기대되는 경기는 미국과 자메이카의 대결이다. 객관적 전력은 우사인 볼트가 속한 자메이카팀이 우위에 있다.

조선DB

높이뛰기는 도구의 도움 없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다. 지난 5월 대구국제육상경기에 출전한 여자 높이뛰기 선수가 막대를 바라보며 배면뛰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타이슨 게이가 대회에 불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결승전에 올라가려면 2009베를린세계선수권대회 기준으로 38초60을 통과해야 한다. 대구세계육상의 남자 400미터 릴레이에는 모두 23개국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19위에 올라 있다. 세계 기록에는 많이 뒤처지지만 우리 대표팀은 지난 5월 39초04를 찍으며 한국기록을 23년 만에 새로 작성했다.

우리나라 남자 400미터 릴레이 대표팀은 여호수아(24·인천시청), 조규원(20·구미시청) 김국영(20·안양시청) 임희남(27·광주광역시청) 전덕형(27·경찰대) 김진국(26·안양시청) 선수로 짜여 있다. 출전 선수는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최종 결정되지만 '여호수아~조규원~김국영~임희남' 순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자 400미터 릴레이에는 정혜림(24·구미시청) 박소연(24·김포시청) 이선애(17·대구체고) 엄지수(22·SH공사) 정한솔(18·익산고) 김소연(21·안양시청) 선수가 출전한다. 오세진 400미터 릴레이 대표팀 코치는 "선수 컨디션도 좋고 바통터치도 본궤도에 오른 만큼 38초60을 찍고 반드시 결선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높이뛰기

남자 결승(9월 1일 오후 7시10분), **여자 결승**(9월 3일 오후 7시)

오는 9월 1일(남)과 3일(여) 각각 열리는 남녀 높이뛰기 결승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높이뛰기는 멀리뛰기와 함께 트랙이 아닌 필드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종목. 원거리에서 도움닫기로 뛰어와 2개의 지주 사이에 걸려 있는 수평막대를 뛰어넘는 경기다. 장대 같은 기구의 도움 없이 가장 높이 뛴 순서로 순위를 겨루는 원초적 종목이다.

선수들은 20미터 이상 힘차게 달리다가 도움닫기를 하고 그 탄력으로 길이 3.98미터, 무게 2킬로그램의 막대를 넘어야 한다. 대개 선수들은 8~13걸음만에 점프해 바를 뛰어넘는다. 선수당 모두 3번의 점프 기회를 주는데, 바를 건드려 떨어지거나 3회 연속 실패하면 실격처리된다. 같은 높이를 뛰어넘은 선수들은 성공시기가 빠른 순으로 우열을 가린다.

대구세계육상 높이뛰기의 볼거리는 단연 여자 높이뛰기다. 2007·2009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블랑카 블라시치(크로아티아)의 우아한 점프에 이어지는 세리머니가 기대를 자아낸다. 격렬한 세리머니로 블라시치는 '필드의 쇼걸'로 불린다. 블라시치는 최근 왼쪽 허벅지 근육 파열로 당초 출전이 불투명했으나 막바지에 출전의사를 밝혔다.

2미터08의 기록을 가진 블라시치가 세계신기록(2미터09)을 깰 수 있느냐도 여자 높이뛰기의 관전 포인트다. 블라시치와 안나 치체로바(러시아)의 경쟁도 주목거리다. 치체로바는 2007·2009 세계선수권에서 블라시치에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하지만 치체로바는 최근 2미터07을 기록하며 블라시치에 바짝 따라붙는 모양새다.

한편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지난해 2미터36을 기록한 이반 유코프(러시아)와 2미터37로 올시즌 최고 기록을 작성한 제시 윌리엄스(미국)의 대결이 볼 만하다. 국내에서는 남자 높이뛰기의 윤제환 선수(24·창원시청)와 여자 높이뛰기 한다례 선수(23·파주시청)가 출전해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G

글·이동훈 기자

대구세계육상 폐막일인 9월 4일 벌어지는 남자 마라톤에서 한국은 '안방의 이점'을 살려 메달권에 도전한다.

황영조 후예들, 검은 돌풍 뚫어라

정진혁·황준현에 '안방의 기적' 기대… 단체전 입상도 노려볼만

한국 육상은 변방에 속한다. 가까운 이웃 일본도 육상은 선진국 수준인데 한국이 여전히 육상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역시 신체의 기본적 활동에 대한 서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한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유독 마라톤에서만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과시해 왔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경보와 더불어 마라톤에서 내심 입상을 노리고 있다. 대회 장소가 안방이며, 훈련과 컨디션 조절 등에서 외국 선수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마라톤 지도자들은 대구 지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잘 대비하고 활용하는 안방의 이점을 극대화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개최국 자존심 내걸 만한 대표종목으로 판단

대회 개최국의 자존심을 내걸 만한 종목은 역시 마라톤이다. 그러나 기록과 경험 면에서 국내 간판스타인 지영준이 허벅지 부상에서 완쾌되지 않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며 차질이 빚어졌다. 정만화 대표팀 코치(코오롱 감독)는 "지영준의 탈락은 사실상 대표팀의 레이스에 앞에서 이끌어 줄 선두 주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마음 아파했다. 물론 대표팀에는 완주 경험이 풍부한 이명승(32·삼성전자)이 있지만 기록이 2시간13분대 이후로 좋지 않아 후배들의 레이스를 이끌어 줄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 과연 누가 한국팀의 새로운 마라톤 주역이 될 것인가. 마라톤 입문 2년 만에 2시간9분대에 진입한 정진혁(21·건국대)과 2시간10분대의 기록을 보유한 황준현(24·코오롱)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정진혁은 마라톤 데뷔전인 2010년 3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15분01초를 기록하고 7개월 뒤인 11월 중앙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10분59초로 4분여를 단축하더니, 지난 3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9분28초로 대회 2위를 차지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성격

조선DB

이 밝고 잔부상이 많지 않으며, 스피드가 좋다.

마라톤 입문 3년째를 맞는 황준현은 데뷔전 기록만 보면 더 가능성이 높다. 2009년 3월 서울국제마라톤 데뷔전에서 2시간11분39초를 뛰며 국가대표에도 뽑혀 베를린세계선수권에 출전했지만 부상 악재로 아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두번째로 뛴 중앙서울국제마라톤에서의 2시간10분43초가 최고기록이다.

1미터79의 큰 키에 65킬로그램의 체격에서 나오는 파워가 황준현의 강점이어서 주자를 추월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큰 체격은 늘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정진혁은 1미터71, 58킬로그램으로 마라토너로서는 이상적인 체형이다.

"경험 부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떨쳐라"

정만화 코치는 "둘 다 이번 대회에 가장 큰 기대를 걸어야 할 선수"라며 "지영준처럼 믿고 따라갈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경험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할 완벽한 레이스 작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큰 과제"라고 했다. 특히 두 선수가 아프리카 선수들과 함께 레이스를 펼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아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정 코치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역시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감과 평상심을 잘 지켜내야 그것이 몸을 통해 경기력으로 드러난다"며 "막판 강도 높은 페이스 훈련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이런 심리적 긴장감과 몸 상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마라톤 레이스가 열리는 9월 4일의 1주일 전부터 단백질 식이요법 3일, 탄수화물 식이요법 3일 등 마지막 영양섭취 작전까지 수행했다.

한국 마라톤은 정진혁과 황준현을 앞세워 개인전 입상에 도전하는 한편, 단체전으로 열리는 월드컵마라톤(5명 출전, 3명의 합산 성적으로 순위 매김)에서도 3위 이내 입상을 노리고 있다. 사실 마라톤 단체전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은 시상대에 단골 손님이었다.

일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개 대회 연속 번갈아 남녀 단체전 우승을 달성했다. 2009년 베를린대회에서는 중국이 여자 우승을, 일본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일본 남자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주영(15위)과 김영춘(24위), 이명승(26위)은 2007년 오사카대회에서 10~20위권의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냈지만 합산 성적에서는 7시간12분08초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전례가 있다.

최근 남자 마라톤 우승자 및 한국 기록

대회	남자 우승	한국 성적
2009 베를린	2:06:54 아벨 키루이(케냐)	2:21:54 이명승(46위)
2007 오사카	2:15:59 루크 키베트(케냐)	2:21:49 박주영(15위)
2005 헬싱키	2:10:10 자우아드 가리브(모로코)	2:26:39 제인모(54위)
2003 파리	2:08:31 자우아드 가리브(모로코)	2:10:48 이봉주(11위)

단체전은 금메달 노리는 일본과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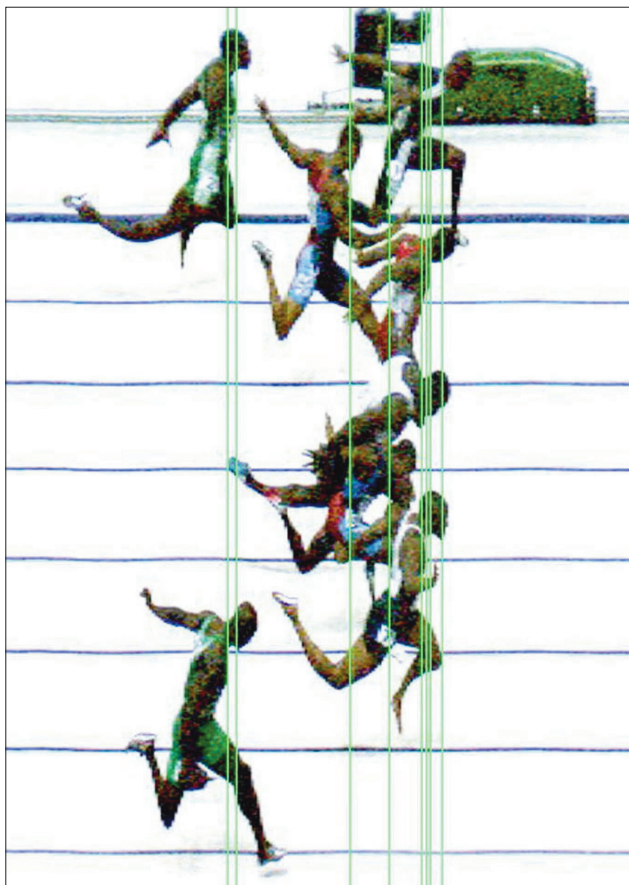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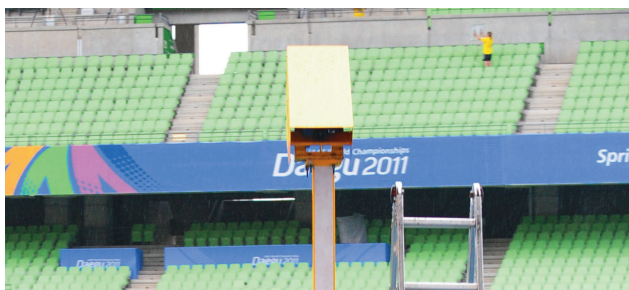
황규훈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은 "아프리카 선수들은 상금도 크지 않은 단체전에는 기대를 아예 않는다"며 "일단 개인전 입상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레이스에 주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잘 노려서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제 기록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에 네번째 출전인 맏형 이명승 외에 유망주 김민(22·건국대)과 황준석(28·서울시청)이 단체전 레이스에 힘을 보탠다.

이번 대구세계육상에 출전하는 해외 마라토너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2009베를린대회 챔피언이며 최고기록이 2시간6분54초인 아벨 키루이(케냐)를 비롯해 2시간5분대가 6명, 2시간6분대가 5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케냐와 에티오피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출신이다. 남자 마라톤에 출전하는 선수는 모두 70명인데, 이 가운데 2시간10분 이내 기록 보유자가 25명이나 된다. 5명이 출전하는 일본은 한국과 똑같이 개인전 외에도 단체전 금메달을 노리는데, 2시간8분대 1명, 9분대 4명, 10분대 1명으로 제법 경쟁력이 있다. G

글 · 권오상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기자)

0.001초까지… 부정출발 “꼼짝마”

결승선 통과 선수들의 동작은 초고속 카메라가 1만분의 5초 간격 찍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기록과 사투를 벌이는 것은 선수뿐만 아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각종 기기들도 대구세계육상을 통해 저마다의 기량을 선보인다.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업체들도 대구세계육상을 계기로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대구스타디움 결승선에 설치된 초고속 카메라는 선수들의 동작을 1만분의 5초 간격으로 찍어낸다.

대구세계육상은 첨단장비를 선보이는 경연의 장이다. 트랙 종목에서는 부정출발 감지기와 초고속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등장한다.

출발신호를 알리는 전자총은 스타트블록과 연결돼 부정출발을 감지하는 데 쓰인다. 스타트블록 안에 장착된 압력센서가 작동하면서다. 압력센서는 총성이 울린 순간과 선수가 출발한 시간 사이를 1천분의 1초까지 계산해낸다.

총성이 울린 직후 0.1초 내에 스타트블록에서 발을 떼면 부정출발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 최소 반응시간을 0.1초 이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구세계육상 공식 후원사로 계측장비를 무상 대여하는 세이코는 “부정출발이 심판진에 전달되는 데 0.1초밖에 걸리지 않아 경기를 빨리 중단시키고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의 순위를 판정하는 데는 초고속 카메라가 사용된다. 초고속 카메라는 선수들의 동작을 1만분의 5초 간격으로 찍어낸다.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미세한 차이를 가려내 순위판정을 돕는다. 또 트랙 바로 옆에는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적외선 감지기는 선수들의 속도와 구간 기록을 전광판으로 실시간 뽑아낸다.

전동식 모래정리기 · 장비회수 무선조종차도 활약

중·장거리 달리기와 마라톤과 경보 같은 도로 종목에서도 전자장비가 대거 등장한다. 선수들은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조끼에 7.5그램의 소형 감응기를 부착하고 뛰게 된다. 트랙 아래에 묻힌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감응기를 감지해 선수들의 순간기록을 작성한다. 선수 개개인의 주행패턴도 트랜스폰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는 영상거리계측기(VDM)란 첨단장비가 선보인다. 2009년 베를린세계선수권 때 시범 사용된 이 장비는 대구대회를 통해 공식 데뷔한다.

본부석 맞은편 관중석 3층에 카메라 2대가 장착돼 있다. 카메라

조선DB
멀리뛰기 경기에 쓰이는 영상거리계측기(VDM)는 착지순간을 포착해 낸다.

조선DB
던지기 경기에 사용되는 무선조종 자동차는 창과 원반 등을 회수해 온다.

조선DB
멀리뛰기 경기에 쓰이는 전동 모래정리기. 경기 직후 자동으로 모래를 정리한다.

가 전송한 화면에서 심판이 착지 지점을 클릭하면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다. 실시간 기록 비교도 가능하다.

지난 5월 대구세계육상의 리허설로 열린 대구국제육상대회 때 처음 등장해 호평을 받은 전동식 모래정리기도 다시 선을 보인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 쓰일 전동식 모래정리기는 경기 직후 흐트러진 모래를 자동으로 정리한다. 과거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치른 후 운영요원들이 직접 모래밭에 들어가서 모래를 일일이 다듬어야 했다.

모래정리기를 사용하면 모래판을 수평으로 유지해 정확한 판정이 가능해진다. 모래 정리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의 5분에서 30초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모래정리기를 납품한 승경체육산업 이만동 대표는 “세계육상연맹 심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구세계육상을 계기로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창과 원반, 포환 같은 던지기 종목에서도 첨단장비가 대거 등장한다. 전자 거리계측기는 적외선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리를 계산해 준다. 원반과 창의 낙하지점에 막대기만 꽂으면 베이스라인에 설치된 계측기가 적외선을 쏘아서 정확한 기록을 측정해낸다. 줄자를 이용해 일일이 거리를 재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또 운동장 가운데로 날아간 창과 원반, 포환, 해머는 무선조종 자동차가 다시 주워 오게 된다. 투척장비 회수용 무선조종 자동차는 국내 업체인 세기모형항공에서 납품한 제품이다. 과거에는 경기가 끝난 직후 운영요원들이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 장비를 일일이 회수해야 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상존했다.

운영요원은 30센티미터 크기의 무선 자동차를 원거리에서 조종해 선수들이 던진 포환과 원반, 창을 회수할 수 있다. 장비 회수에 따른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선수들도 경기흐름을 잃지 않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던지기 경기의 전체적인 경기운영 시간도 줄어 보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2륜차 세그웨이 등 스타디움은 ‘전기차 세상’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운송수단도 대구세계육상을 통해 대거 선을 보인다. 일어선 채로 운전하는 세그웨이 2대가 대구스타디움 곳곳을 누비게 된다.

세그웨이는 시속 20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는 2륜 자동차다. ‘서서 타는 스쿠터’란 별명을 갖고 있다. 경기장 곳곳을 간편하게 돌아다니기에는 안성맞춤이란 평가다.

경기장 잔디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잔디관리 차량도 스타디움에서 볼 수 있다. 잔디관리 차량은 후미에 달린 노즐을 통해 물과 농약을 잔디에 고르게 뿌린다. 대구스타디움 필드를 관리하는 데 10분이면 족하다. 이 밖에 허들 운반용 전기차(3대), 선수 이동용 전기차(17대), 장대 운반용 전기버스(2대) 등 각종 전기차가 대회 운영을 돕는다. G

글·이동훈 기자

다문화의 힘… 외국어 봉사 발벗고 나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원… 모국팀 응원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대구 시내 곳곳에선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인 시민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구나 한국 출신이 아닌데도 대구육상대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다문화'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들도 있다.

한국 사회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하는 일을 하며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위한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하는 중국 출신 권하연, 김설영, 마영씨(왼쪽부터).

중국 출신 서포터즈 3인방
"목이 터져라 신나게 응원하며 경기 즐기려고요"

"이번 대회처럼 국제적인 행사가 내가 사는 고장에서 열린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하계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경험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에도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모두 개최한 요즘엔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트위터로 날마다 자랑을 하고 있죠."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대구시립도서관 등지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권하연(중국명 첸샤엔·43)씨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소식을 들은 순간 바로 자원봉사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는 '열성 대구시민'이다.

원래는 중국어에 능한 남편, 딸과 함께 온 가족이 동시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지만 직장과 학교 공부에 바쁜 남편과 딸이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시민서포터즈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지난 2008년에 열린 세계육상대회에서도 하루종일 경기장을 지키며 목이 쉴 때까지 응원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즐겁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려고요. 활기찬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띄우고 선수들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권씨 가족은 2002년 한일월드컵부터 시작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008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등 대구에서 열린 국제적인 행사에 앞장서 참여해 온 모범시민이다.

"중국에 살다가 2002년 대구로 이주했는데, 이주 이유가 월드컵을 대구에서 관람하기 위해서였어요. 평생에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권씨의 말에 함께 자리한 김설영(29·중국명 진세잉·달서구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 홍보강사), 마영(36·중국명 마영·대구달서구다문화지원센터 이중언어 강사)씨도 고개를 끄덕인다. 김씨와 마씨는 대구육상대회의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마부하이(만세) 코리아!" 필리핀 출신 크리스틴씨(왼쪽)는 이렇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자신의 응원 구호를 들고 선 로드레이스 경기진행 자원봉사자 오카무라 쿠미씨(오른쪽).

김씨는 "2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 권유로 무작정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2년 전에 비해 한국어가 능숙해져 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통역자원봉사자 필리핀 출신 크리스틴씨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한몫할 수 있어 자랑스러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한국어와 한국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원봉사를 결정했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선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자 플라자 마리아 크리스틴(41)씨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며 밝게 웃었다.

방과 후 학교와 영어학원 등에서 인기 원어민 강사로 통하는 '워킹맘' 크리스틴씨가 대구육상대회 통역으로 일하면서 받는 보수는 전혀 없다.

"돈보다 더 큰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가 받는 보수는 돈으론 살 수 없는 국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크리스틴씨는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야간 전화통역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자신의 재능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바쁜 와중에 자원봉사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을 하자 "한국이 베푼 고마움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봉사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한국 정부나 대구시로부터 받은 관심과 여러 선행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세계육상대회의 통역 자원봉사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진심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바로 결정을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 제가 한몫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로드레이스 자원봉사 일본 출신 오카무라씨

"일본 선수도 가까이서 응원할 수 있어 뜻깊어요"

다양한 출신국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이고 출신국가의 선수들이나 관람객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일본 출신의 오카무라 쿠미(36·영남이공대학 1학년)씨는 마라톤과 경보 대회가 열리는 5일간 선수대기실에서 대회 진행을 돕는 로드레이스로 활동한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지 2년이 좀 넘은 새내기 주부이기도 한 오카무라씨는 대회장에서 만나게 될 일본 선수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응원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품고 있었다. "로드레이스 자원봉사자 중에서 제가 유일한 일본인이라서 일본 선수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학강사와 학생 등 자신의 일과 가사만으로도 바쁜 이들이 주저 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겠다는 결정을 했기에 이들의 자원봉사와 서포터즈 활동은 더욱 뜻이 깊다.

대구육상대회 개최에 앞서 교육을 받고 대회 기간 중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서 있어야 하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공을 대구시민 전체의 수훈으로 돌렸다. G

글과 사진·이윤진 객원기자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대상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

■ 신청시기

8월 8일부터~ (연중 수시 가능)

※8월 8일 ~ 9월 30일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관련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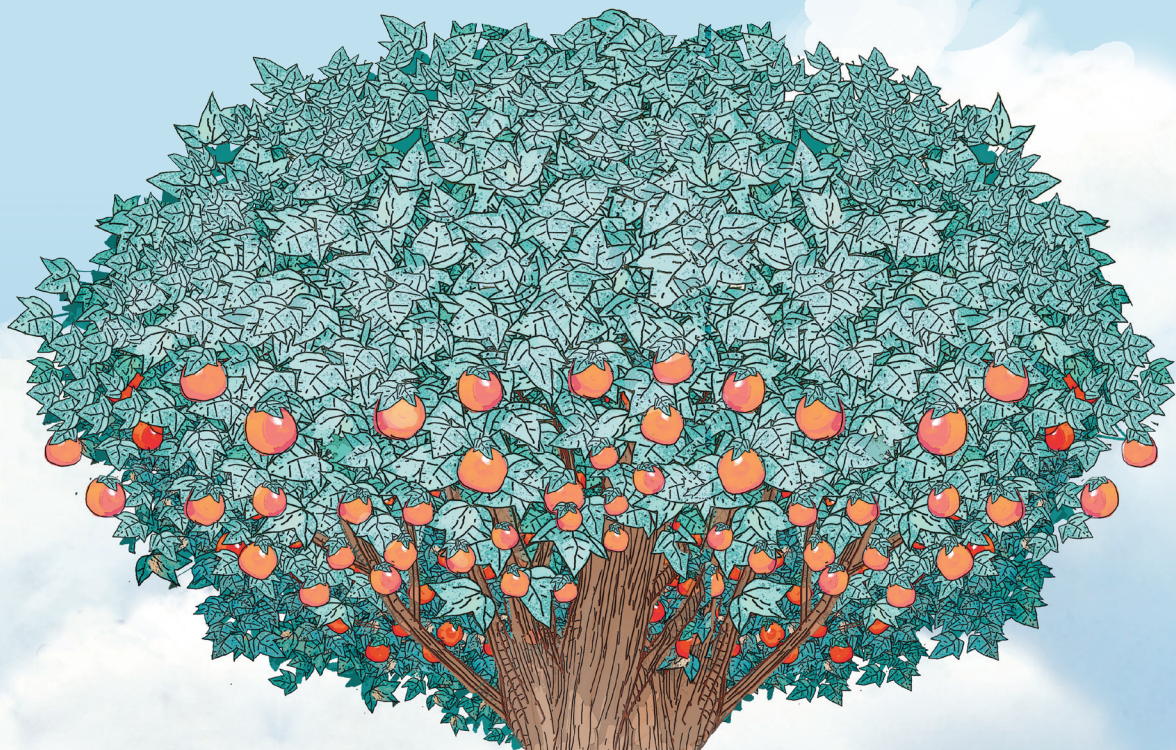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 획 특 집

공생발전의 씨앗 사회적기업

그들은 기업이지만 이익창출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법니다. 흔히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기보다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새터민 등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따뜻한 사회, 따뜻한 공생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립기반이
한층 단단해질 때 우리 사회의 체온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문화서비스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의 공연 모습.

"사회공헌 효과"… 대기업들 팔걷었다

인증기업 4년 새 5백55개로 10배 이상 증가… 종교·사회단체도 설립 늘어

사회적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환경, 범죄, 실업 등 현대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종교단체들도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기반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SK그룹의 발표에 시장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다. 매출 1천억원대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자회사인 MRO코리아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SK는 MRO코리아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 등을 사회적기업에 맞게 재편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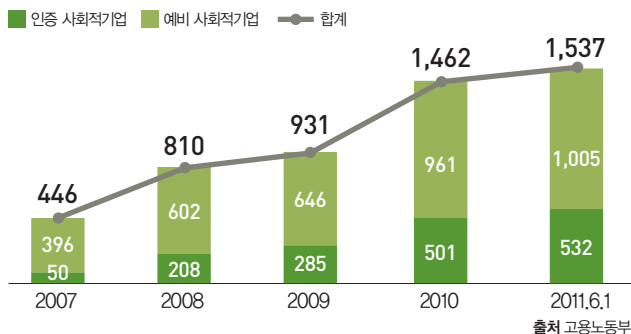
SK그룹은 사회적기업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현재 76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6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다. SK만이 아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유수의 그룹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은 2개인 사회적기업을 향후 2년 안에 5개로 늘리기로 했고 LG는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 공감대 마련 위해 다각적 지원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을 하고 수익은 다시 사회적 목적을 완수하는 데 투자된다. 기존의 기업 사회공헌이 일회성 성격이 강했다면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효과가 있다.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적기업 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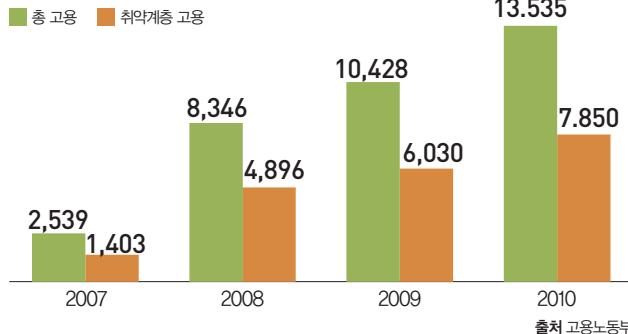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증가 추이 (단위 : 명)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50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7월 말 현재 5백55개로 늘어났다. 4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하고 대국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 '1사 1사회적기업' 운동도 벌이고 있다. 결연, 지원, 설립 등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보증 등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범정부적인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간다. 관계부처와 연관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와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 확산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의 종교단체, NGO,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사업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는 데 성과가 큰 지방자치단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는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존폐의 기로에 설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없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75억원, 50억원인 미소금융재단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각각 1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펀드도 조성한다.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도 만든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시 특별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는 낮출 계획이다. 보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증규모는 3백50억원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의 고민 중 하나인 판로개척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터준다.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도 해결

사회적기업은 수익기반을 얻고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개정했다.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물품 제공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구매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과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감면(30~70퍼센트)해 준다.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경우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돼 기업이 자유롭게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쓰지 않는 국공유 물품은 자원재활용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위 캔 두 잇"

"고생만큼 큰 보람" 자긍심 커져… 지적장애인 롤모델 다짐

사회적기업 위캔은 특별한 쿠키를 만든다. 우리 밀과 우리 쌀, 우리 버터 등 토종 원재료를 고집하는 웰빙쿠키다. 더욱 특별한 것은 지적장애인들이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치료도 겸한다. 직업재활기관이자 치료공동체이며 당당한 기업이다. '지적장애인계의 삼성'이라 불릴 정도여서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직원들의 변화를 접할 때마다 뿌듯한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이 정도니 부모님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취지를 잘 지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위캔의 '사장님'인 이수경(마리아) 수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성직자로서 기업 경영을 하느라 '죽을 맛'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온갖 걱정이 사라진다고 한다.

위캔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 그중에서도 사정이 더욱 열악한 지적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현재 58명인 직원 가운데 39명이 지적장애인이다. 마리아 수녀의 설명이다.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지적장애인은 더 그렇죠. 게다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장애인들은 정말 많이 변해요. 사회성, 적극성, 자긍심, 희망 이런 게 모두 커지죠."

위캔은 우리 밀과 우리 쌀, 우리 버터로 쿠키를 만드는 회사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했다. 위캔은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쿠키사업도 직업재활을 위해 시작한 일이다.

이수경 시설장은 "위캔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롤모델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위캔은 2008년 사회적기업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함께 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익의 1백퍼센트를 재투자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다. 더 많은 고용을 하는 것보다 현재 함께하는 장애인 직원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다.

쿠키 제작 전 공정 참여… 수익 100퍼센트 재투자

위캔의 비전은 장애인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반죽에서 성형, 포장에 이르기까지 쿠키 제작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장애인이 전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허드렛일에 그친다. 자신들이 제조 전 과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은 장애인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애로가 적지 않다. 일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고, 일반인보다 몇 배의 인내심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큰 바위를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깎아 조각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만큼 보람은 더욱 크다. 마리아 수녀의 즐거운 기억이 이어졌다.

"직원들이 우연히라도 위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나게 되면 대단한 주인의식을 발휘합니다. 진열이 흐트러져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고쳐 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위캔 다녀요'라고 당당히 말하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누가 위캔을 알겠어요. 그래도 위캔 다닌다고 자랑해요."

위캔은 지적장애인 사회에서 '삼성'으로 통한다. 위캔의 성장속도는 그만큼 강하고 지속적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후 위캔은

위캔은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해 우리밀쿠키를 만들고 있다. 연평균 20퍼센트 성장을 거듭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20퍼센트가량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자체로도 우수한 성장률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조업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운 데다 지적장애인들이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20퍼센트 성장 '지적장애인 사회의 삼성'

성장의 밑거름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있다. 먼저 원재료가 다르다. 위캔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 밀과 우리 버터를 고집했다. 자연히 가격은 경쟁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지만 웰빙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고객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 마리아 수녀는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반응을 많이 듣지만 원재료를 감안하면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재료 가격이 더 오른 데다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밀은 인기가 높지만 공급이 제한적이고 버터는 우유 파동으로 품귀였어요. 사업하는 분들께 고민을 얘기하면 섞어 쓰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우린 안 그럴 겁니다. 그것이 소비자와 우리 직원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들어 하자가 있을 것이라 생트집 잡힐 여지는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마리아 수녀는 잘라 말한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높고 두툼한 벽으로 다가왔다. 이런 일도 있었다.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수녀니까 신도님들이 반가워서 팔아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장애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쿠키를 놓고 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이 놀라고 울고 기도했어요."

사회적 편견에도 '착한 소비' 관심 높아져 희망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위캔 쇼핑몰의 회원들이 조금씩 느는 등 흔히 말하는 '착한 소비'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희망을 가지게 한다.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위캔의 쿠키를 찾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쿠키를 구입해 아동시설에 기부를 하는 예탁결제원이 그렇다.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고 물을 때 '위캔을 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적장애인의 역할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소신을 지키면 우리의 길을 알아줄 소비자들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G

글·변형주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상품 문의·www.wecan.or.kr ☎ 031-969-3533

"새터민에게 일자리 줄 묘안 찾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창업뒤 고군분투… 연 40억원 매출 급성장

2003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축이 돼 창업한 청소용역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연매출 40억원가량을 올리는 이 업체는 친환경 청소법으로 업계에 명성이 자자하다. 모 재벌집 안방까지 도맡아 청소할 정도다. 향후 이 업체는 새터민(탈북자)에게도 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주축으로 연 매출 40억원을 올린 회사가 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함께 일하는 세상'의 얘기다. 지난 2003년 아파트 입주청소로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10여 개 자활공동체가 모여 만든 청소용역 연합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함께 일하는 세상'은 지난 2009년에는 웅진그룹의 가정용 청소사업부문 '인스케어'까지 인수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 사회적기업이 대기업 사업부문을 인수한 셈이다. 본사가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중학교, 관공서와 병원, 기업용 빌딩 등으로 사업을 점점 키우고 있다.

'함께 일하는 세상'을 창업한 사람은 이철종(37)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003년 기초생활수급자 3명과 같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창업했다. 이철종 대표의 입에서는 국내 최고(最高) 높이의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함께 일하는 세상'에서 청소를 맡았던 국내 유명 건물들이 줄줄 나왔다.

경기·인천지역 청소용역연합기업으로 발돋움

청소용역업체의 대표지만 사실 이철종 대표는 청소용역업이나 친환경, 사회적기업과는 별반 인연이 없었다. 전공인 전자통신보다 철학이나 사회학 같은 데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정도였다.

"군 제대 후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대학 중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세차장, 신문배달, 전단배포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한때 인쇄기획소도 운영했는데 돈 버는 일에는 별반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26세이던 지난 2000년 경기도 시흥의 한 자활센터에 들어가 사회활동가로 변신했다.

그러던 중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기초생활수급자 3명과 함께 지금의 회사를 차렸다. 처음 따낸 일감은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 이후 시흥 여성회관과 종합병원 청소용역을 따내며 회사를 키워 갔다. '사회적기업'이라 관공서 청소의 경우 일정 부분 배려도 있었지만, 창업 후 5년간은 고군분투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철종 대표는 '친환경'을 앞세워 청소용역 시장을 파고들었다. 이 업체는 산성세제 대신 중성세제, 물청소 대신 건식(乾式)청소를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는 "물을 닦는 데 드는 수고도 덜고, 세균으로 인한 2차

청소용역 사회적 기업 '함께 일하는 세상'의 이철종 대표(가운데)는 "품질과 서비스를 앞세워

오염, 건물노화를 막는 효과적 방법이란 판단으로 건식청소를 고집한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청소. 락스는 종종 화장실·욕실 청소용으로 쓰인다. 물에 몇 백배 희석해 사용해야 하지만 대개 물만 대충 부은 다음 사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세상'은 화장실 청소때 '락스'를 쓰지 않는다. 강알칼리성의 살균 표백제인 락스는 건물표면을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 중화제를 사용한다. 천연 중화제로 찌든 때를 벗겨 내는 것이다.

친환경청소 전문기업으로 확실히 자리잡아

건물주들은 "왜 청소를 했다면서 락스 냄새가 안 나느냐"며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건물수명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건물주들을 설득하는 데 한동안 애를 먹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친환경 청소법으로 '함께 일하는 세상'은 청소전문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청소 단가도 경쟁업체들에 비해 10~30퍼센트 비싸다.

김승완 기자

청소용역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가의 수입 청소장비를 직도입하는 등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품질과 서비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이라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다. 전체 직원 중 50~60퍼센트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다. 물론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고용을 더 늘리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서비스 마인드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 만큼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생각은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기업용 빌딩 청소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장기적 목표다. 초·중학교와 관공서에 몰려 있는 일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중견기업 이상의 빌딩 청소는 퇴직 임원들이 운영하는 용역업체들이 맡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면서도 "품질과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함께 일하는 세상'은 다른 사회적기업을 키우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함께 일하는 세상'은 업계 최초로 '직업훈련개발시설'로 지정됐다. 이틀에서 2주일까지 청소훈련과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교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최근에는 방문교육만 40건에 달할 정도다.

직업훈련도 병행… 또 다른 사회적기업 키우기도

지난 7월에는 청소용역업계에 종사하는 27개 사회적기업들을 한데 모아 '청소대안기업연합회'란 사단법인도 설립했다. 이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연합회는 청소업계 내의 정보공유와 교육은 물론 새로운 청소기업 발굴 육성에도 관여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새터민(탈북자)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탈북청년들에게 고층빌딩 유리창 닦기 등 특수청소 영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고층빌딩 유리창 닦기 같은 외벽청소의 경우 20일 정도만 일하면 약 4백만원가량의 목돈을 수중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벌이가 괜찮다"고 말했다.

"고층빌딩 외벽청소는 고난도의 기술과 강한 체력이 받쳐 줘야 합니다. 타워팰리스 외벽은 올라갔다가 밥 먹고 내려오면 하루가 훌쩍 지날 정도로 일이 고돼요. 대신 탈북청년들은 체력도 받쳐 주고 수익에 대한 도전욕구가 강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려는 의지도 강한 만큼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G

글·이동훈 기자

한땀 한땀… 그들의 꼼꼼한 특성이 경쟁력

불량품 없는 '1등 모자 생산업체'로 … 재생 카트리지 사업도 진출

모자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7개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디자인에서부터 재단, 봉제, 검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작업이 없다. 작업의 속도는 조금 더뎠지만 모든 과정은 꼼꼼하게 진행됐다. '발달장애인들이 만드는 모자' 제조업체로 유명한 '동천'(구 '동천모자')의 얘기다.

실밥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동천' 공장 1층 생산라인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돌돌 말린 천 묶음이 작업대에 펼쳐지자 천은 재단선에 따라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드르르' '드르르' 재봉틀도 숨 가쁘게 돌아갔다. 차츰 모자의 형태가 잡혀가는가 싶더니 이내 모자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들어진 모자는 실밥 제거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한쪽 작업대로 옮겨졌고 마지막 검수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납품 상자에 담겼다.

"17개 공정, 어느 하나 쉬운 작업이 없어요. 좀 더디지만, 이분들처럼 꼼꼼하게 해내긴 어렵습니다. 너무 정직하고 솔직하게 일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동천' 성선경(73) 대표의 말이다.

'동천'은 제작 관련 전 과정에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70명의 직원 중 제작에 참여하는 43명 모두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다면 생산라인은 여느 공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작업대 가까이 가서야 '손이 조금 느리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손은 느려도 맡은 일만큼은 '불량률 제로'

"43명 장애 직원 중 50까지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명뿐입니다. 작업 속도도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느려요. 하루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불량품 없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만큼

생산라인은 여느 공장과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현재 '동천'에는 발달장애인 43명이 모자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 모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찔리는 짓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맡은 일만큼은 최대한 꼼꼼히,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직원들 덕분에(?) 생긴 유명한 일화도 있다.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동천’을 방문했을 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검수를 담당하던 한 작업자가 불합격 처리해 버린 멀쩡한 모자를 보고 “이건 왜 불합격이냐”고 묻자 작업자는 모자의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여기 색깔이 다르다”고 답했다. 해당 모자는 검수자의 말대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색 번짐이 있었다. 성 대표는 “각각 한 가지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완성도가 높은 모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지난해 첫 흑자

‘동천’은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이 장애인 특수학교 ‘동천학교’ 졸업생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2002년 설립한 모자 제작 기업으로 2007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0월 사회적기업에 선정됐다.

“처음에는 체신부, 육군, 공군 등에 모자를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공장 유지하기도 빠듯했어요. 그러던 중 2007년에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서 세제혜택과 2년간 전문인력 20명분의 최저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됐어요. 당시 정부 지원이 오늘날 ‘동천’의 기반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천’은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정작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스포츠 업계가 기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에서 ODM(제조업자개발)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면서 ‘동천’도 과감하게 디자인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한 결과다. 지난 몇 년간 5억원에서 10억원에 머무르던 매출은 이후 25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모자를 납품해 남는 이윤은 15퍼센트 남짓. 70명의 인건비와 유지비를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것 없는’ 상황이지만 성 대표는 “‘흑자를 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설립 후 첫 흑자’ 덕분에 지난해 추석에는 성과급도 지급할 수 있었다.

“적은 액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흑자를 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게 성 대표의 말이다. 성 대표는 “다가오는 추석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빙그레 웃었다.

생산해 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근 수주를 의뢰해 오는 기업들도 늘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국내 유명 업체들이다. 하지만 성 대표는 “큰 욕심은 없다”고 말한다.

‘동천’의 성선경 대표는 “장애 직원들이 해낼 수 있는 작업량을 인정하고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자 ‘동천’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주 5일 근무에 아침 9시 출근, 6시면 퇴근합니다. 직원들의 작업 속도, 하루 생산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 능력만큼만 생산하고 있어요. 수주 기업이 늘어난다고 해도 불량 없이 정확한 날짜에 납품해 주는 게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만큼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천’의 한 달 모자 생산량은 약 2만 개다. 현재 동천에서 생산한 모자는 뉴발란스, 헤드, EXR, 엘레쎄 등 고급 스포츠 브랜드로 전국 유명 스포츠웨어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3만~8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마케팅과 판로 개척은 정부가 도와줬으면…”

2008년부터 ‘동천’은 기존에 해오던 모자 사업 외에 카트리지 재생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모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해 매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카트리지 재생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며, 작업과정이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회사 이름을 ‘동천모자’에서 ‘동천’으로 바꾼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성 대표는 “회사의 안정이 곧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이라면서 “제품 제작 외에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 부문은 전혀 신경을 못 쓰는 만큼 정부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유창우 기자

염동우 기자

기업명 '프리즘'은 빛의 파장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프리즘(prism)을 뜻한다. 동시에 사회나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프리줌(Free-Zoom)과 프리존(Free-Zone)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사진은 공공미술프리즘의 공동 창업자인 전유라 국장(사진 왼쪽)과 유다희 대표.

"미술로 일자리 창출… 감동을 그려요"

13명의 직원이 연간 20여 프로젝트… 지역주민들과 공동작업 뿌듯

이들의 손이 닿으면 삭막한 벽도 음침한 지하도도 모두 예술작품으로 바뀐다.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의 솜씨다. 9년차에 접어든 공공미술프리즘은 최근 시민참여형의 공공벽화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 문제,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감동 때문인 것 같아요.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고맙다'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공공미술프리즘 공동 창업자인 전유라(35) 국장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로 '감동'을 꼽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자리한 공공미술프리즘은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시작은 미약했다. 동갑내기 친구 유다희 대표와 전유라 국장은 젊은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2003년 공공미술프리즘을 설립했다. 이들이 처음 맡은 공공미술 사업은 '안양천 프로젝트'였다. 안양천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국내외 작가 8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전씨와 유씨는 안양천의 상징인 도마뱀 형상의 안내판을 제작하며 실험적인 공공미술을 시도했다. 이를 계기로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연매출 6억원의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아

2004년 경기문화재단의 공공미술 분야에 공모해 벽화사업 예산을 따냈다. 그러나 벽화를 그릴 장소가 없었다. 지금이야 사회공익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벽화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당시는 공

공미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때였다. 60여 통의 전화를 돌린 끝에 경기도 안산의 한 공무원이 제안서를 받아줬다.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공공미술형 마을 프로젝트 외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현재 공공미술프리즘은 13명의 직원이 연간 20여 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어엿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전유라 국장은 공공미술프리즘의 작업을 '씨앗'이라 말한다. "처음에는 벽화사업을 주로 했어요. 벽화는 시각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이런 저희 작업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공공미술의 영역을 넓히는 게 제 꿈이에요."

공공미술프리즘은 이처럼 공공미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전 국장은 청년 실업, 노인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미술을 제시했다.

공공미술프리즘

공공미술프리즘

공공미술프리즘은 시민참여형 공공미술을 추구한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세대가 어우르는 벽화그리기' 작업에는 혜명양로원의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사진 위) '버스 프로젝트'에는 2200번 버스 내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승객들이 남긴 메모를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했다.

희망근로·버스 프로젝트로 지역주민에 호응 얻어

"지난해 고양시와 함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50~70대 희망근로자분들과 함께 시범적으로 벽화사업을 실시했죠.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나 줍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던 이분들이 나중에는 삶의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고양시 내 5곳에서 벽화작업을 하면서 희망근로자들이 변해 갔다. 이전에 목수 일을 했던 70대 할아버지는 제2의 인생을 찾게 됐다며 즐거워했고, 한 아주머니의 경우 딸이 엄마가 화가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며 뿌듯해 했다.

"마지막 날 파티를 열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들 아쉬워하면서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공공미술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성취감을 안겨주고 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버스 프로젝트'도 6년째 진행 중이다. 버스 프로젝트는 버스공간을 활용해 청년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전시공간을 열어주는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이다.

"젊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도 갤러리에 전시하려면 대관료를 내야 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버스 프로젝트예요. 버스 내부를 젊은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꾸며 이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동시에 대중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는 거죠."

전 국장은 2006년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버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다. 서울 합정역에서 경기도 파주 헤이리마을로 가는 신성교통 2200번 버스 내부를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웠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버스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면서 이제는 버스회사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 단순한 홍보로 생각해 크게 반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 프로젝트를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신성교통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 국장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것도 젊은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발판이 돼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를 보고 청년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공미술프리즘은 올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 자립형 모델로 성장하는 것이다.

"지자체 공모에 응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는 기업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 자립형 모델로 카페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는 공공미술과 관련한 아카데미나 강사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공공미술을 강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공공미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G

글·이제남 기자

영세 복지시설에 홈페이지 무료 제작

손쉽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중… 온라인 교육서비스도 지원

"비영리기관들의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관이 홈페이지 등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비용 때문이죠. 온디자인은 이런 기관들에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주는 등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온디자인'은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모(母)법인인 '두얼스'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다가 지난 5월부터 '온디자인 주식회사'로 독립했다. 사업 초기에는 디자인 계열의 장기 미취업자나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했다.

양세진 기획영업팀장은 "'온디자인'은 홈페이지 제작 개발 및 유지보수, 편집디자인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업이지만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재정적 여력이 없는 비영리단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재능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온디자인'은 최근 비영리단체들이 손쉽게,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미처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동우 기자

'온디자인'은 비영리기관들에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주고 있다.

양 팀장은 "분기당 1백에서 1백5십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지만 본업이 있다 보니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비영리단체가 간단하고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이외에도 비영리단체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일감 맡겨줘 수익기반 확충

'온디자인'은 지난 2009년 한중아시아교류진흥회 홈페이지 무료제작을 시작으로 수많은 비영리단체에 '소통의 창'을 열어주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 해남지역아동센터 홍보물, 성남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블로그, 한울타리 장애인 쉼터 CI 등이 대표적이다.

영세한 지역사회 복지시설들은 온디자인의 재능기부로 지역주민들과 더욱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복지시설에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물론 반대로 주민들이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일도 생겼다.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고민 중 하나는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회적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대표적이다. '온디자인'도 정부의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 그만큼 지속가능한 경영에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의 결연이다. 이 기관은 일반기업이 진행하고 있던 홈페이지 관리를 사회적기업인 '온디자인'에 맡겼다. 공공기관과의 결연은 이후 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객 포트폴리오에 공공기관이 있어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글 · 김선영 인턴기자

"주위 시선 의식 않고 일할 수 있어 좋아요"

청주교도소가 창립 지원… 전체 직원 절반 출소자 채용

채용수(36)씨는 전과자다. 2008년 7월 경기도 안양의 한 교회에 들어가 헌금함에 손을 댔다가 구속돼 청주교도소에서 2년4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 그는 어엿한 IT 전문 회사의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정보기기 분야 기술교육 과정을 마친 그는 출소 후 교도소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출소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누리뜰희망IT(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대표 오동식)에 입사한 것이다.

오전 8시 청주 시내 '출소자의 집'(출소자에게 국가가 임시로 제공하는 숙소)을 나서는 채씨는 오후 6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그가 맡은 일은 전국 70여 곳의 노인복지시설 전산시스템 관리. 많게는 한 달에 10여 차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을 출장 다니며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월 120만원가량의 적은 보수를 받지만 그에게 회사는 이름처럼 '온 세상을 우리 집 앞마당처럼' 만들 수 있는 희망의 일터다.

고향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자회사에서 8년가량 근무했던 채씨의 지금 희망은 현 회사에서 컴퓨터 유지 보수 업무를 확실히 익힌 뒤 자그마한 가전제품 수리점을 창업하는 것이다. 얼굴과 본명을 떳떳하게 공개한 채씨는 "함께 복역했던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때문에 주위 시선이나 눈치를 볼 필요 없어 좋다"며 "고향의 아버지도 제 일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말했다.

전국 70여 곳 노인복지시설 전산시스템 관리

청주교도소가 작년 11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창립을 지원한 누리뜰희망IT는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출소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전국 첫 사회적기업이다. 2009년 2월부터 창업 준비에 들어간 이 회사는 여러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아 탄생했다.

출소자 취업지원위원장을 맡았던 김철수(64)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70평가량의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내주기도 했다. 기존 IT 전문 회사를 모태로 만든 이 회사에는 채씨를 비롯해 출소자 7명이 근무 중이다. 회사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이다. 교도소

조선DB

누리뜰희망IT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인 채용수씨(가운데)와 최효숙 청주교도소장(오른쪽), 오동식 대표(왼쪽). 채씨는 얼굴과 본명을 떳떳하게 공개했다.

직업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최효숙 청주교도소장은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쉽다"며 "누리뜰희망IT도 이런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2009년 기준 출소자 재범률은 22.4퍼센트로 5명 중 1명꼴로 다시 범죄 유혹에 넘어간다"며 "이들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출소자들은 일반 직원들과 돈독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에 적응하고 있다. 누리뜰희망IT 영업부 장용진 팀장은 "채씨를 비롯한 출소자들이 바쁜 와중에도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며 "업무 능력도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누리뜰희망IT가 국내 여러 대학과 공동 개발한 노인 생활시설 복지 관리 전산시스템(E-Care Management)은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과 편리한 기능 덕에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요양원에 있는 노모가 오늘 아침 무슨 반찬으로 식사를 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컴퓨터로 소상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누리뜰희망IT 오동식 대표는 "아직 넉넉하게 임금을 주진 못하지만 출소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유태종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앞 못보는 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다

점자출판시장 70퍼센트 차지… 한국점자도서관도 운영

'도서출판 점자'는 점자출판 시장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회사다. 이 회사 육근해 대표는 시각장애인으로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인 한국점자도서관을 세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점자출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촉각도서 등은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도서를 펴내는 '도서출판 점자'는 '사회적기업'이다. 하지만 육근해(陸根海·51) 대표에게 이 일은 대를 이은 가업(家業)이기도 하다. 육근해 대표의 아버지 육병일씨(陸柄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일찍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뜻을 두었던 육병일씨는 시각장애인들의 실태를 접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흔 살이 되던 1969년, 육병일씨는 사재를 털어 종로5가에 12제곱미터(약 4평)짜리 한국점자도서관을 열었다.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이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도서관 인가를 얻기 위해 찾아간 공무원은 "멀쩡한 사람 읽을 책도 없는데, 무슨 점자책이냐"고 면박을 주었다.

육병일씨는 점자책을 직접 펴내기 시작했다. 육병일씨는 점자도서관을 시작한 지 4~5년 만에 가산을 모두 날리다시피 했다. 육근해 대표은 "끼니를 못 잇고, 학교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점자책을 펴내는 데 사람을 쓸 여력이 있을 리 없었다. 육병일씨의 부인과 5남매가 점자책 만드는 일을 거들었다.

교수직도 마다하고 아버지의 유업 이어

1997년 아버지 육병일씨가 별세한 후에는 어머니 장순이씨가 한국점자도서관장을 맡았다. 2004년부터는 육근해 대표가 관장직을 물려받았다.

육근해 대표에게 이 일에서 벗어날 기회도 있었다. 경기대에서 문헌정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08년 나사렛대 점자문헌정보학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도서출판 점자'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점자인쇄 작업을 하고 있다.

과 교수로 임용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2009년 교수직과 점자도서관 사이에서 점자도서관을 택했다.

그동안 점자책을 내는 사업은 한국점자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장애인과 사랑나눔본부(현 청송교육문화진흥회)'에서 해 왔다. 이 사업이 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2008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듬해 2월 '도서출판 점자'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흔히 시각장애인용 서적이라고 하면 점자책을 연상하지만, '도서출판 점자'에서는 점자책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용 서적을 펴낸다. 2009년에는 점자라벨도서, 촉각도서, 큰글자도서 등을 새로 개발했다.

촉각도서의 경우 기획에서 샘플이 나올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린다. 게다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육근해 대표가 펼쳐 보인 〈무섭지 않아〉라는 촉각도서의 경우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림책인데, 가격은 4만5천원에 달했다. 육 대표는 "촉각도서의 경우 30~50부 정도씩 소량 주문생산을 하다가 외부의 지원이 들어오면서 2백~5백 부로 발행부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사물의 이해 돕는 촉각도서 개발… 해외수출 모색

'도서출판 점자'에서 지금까지 판매한 촉각도서는 1천6백71권, 큰글자도서는 7천2백23권. 촉각도서는 일본·프랑스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큰글자도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노인용도서로 관심을 보이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도서출판 점자'가 지난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5억5천만원이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원금 3억원을 비롯한 각종 외부지원금까지 합하면 매출액은 10억원 가까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시각장애인 대상 정책홍보지 〈손끝으로 읽는 국정〉도 내고 있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도서출판 점자' 사업장에서 만난 김숙영씨는 뇌성마비 1급이다. 그는 2001년 한국점자도서관에 들어가면서 점자 편집일을 시작했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좋아요"라고 말할 뿐, 길게 의사표시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컴퓨터로 한글텍스트를 점자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입사 3년차인 박혜경 큰글자팀장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업무상의 어려움 같은 것은 보통 회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우리가 만든 큰글자 책을 보면서 기뻐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배진영 기자

代 이어 점자출판 사업 육근해 대표
시혜성 지원 대신 판로개척 도움 줬으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때문에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집안 분위기가 어둡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런 콤플렉스가 없었어요. 늘 당당하셨죠. 길을 갈 때 남들이 '장님'이라며 수군거려도 오히려 우리에게 '저건 우리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도 화목했고요. 덕분에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런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구김살 없이 자랐어요."

교수가 되려다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

"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제가 아니어도 많지만, 점자책을 만드는 일은 저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조금 덜 누리더라도 나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점자책을 내면서 특히 보람을 느낀 일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시죠.

"작년에 한화그룹의 도움으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촉각도서를 지원했어요. 애들이 자기 책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손에서 놓으려 하질 않더군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다른 회사와 다를 바 없어요. 빈자리가 생기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채용합니다."

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25명입니다. 많을 때는 45명까지 간 적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줄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잘 붙어 있습니까.

"입사 후 1~2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꾸준히 일하는 편이에요. 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할 때 들어온 10명 가운데 7명이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저 월(月) 1백만원에서 시작하는데, 평균 1백5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주고 싶은데 재료비 등이 비싸고, 판로에 한계가 있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행정 일선에서 아직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한 것이 아쉽습니다. 해당 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지역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지만,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그게 뭔데'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원에 기대는 사회적기업은 이미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같은 방법으로 판로개척에 정부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칸막이식 부처이기주의 깨라"

범정부 차원서 민간과 협력 통해 '사회적기업의 한국식 모델' 찾아야

사회적기업의 싹이 이제 움을 틔우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제도권이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보살피고 가꿔 가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육성정책도 한층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최소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또 다른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남기는 제로섬(zero-sum) 방식이 아닌, 경제적이고 윤리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윈윈(win-win)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뿌리 깊은 가난이 그렇고, 다가올 고령화와 실업이 그렇고, 늘어나는 이산화탄소와 환경파괴가 그렇다. 크게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 작게는 지역의 재개발과 재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 문제에서 많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의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곳은 없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지원은 이미 세계적이다.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서밋을 만들어 주류사회와의 소통을 돕고 있으며, 하버드대 교수인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아쇼카 파운데이션은 가난, 문맹, 환경, 보건, 문화, 차별 등의 사회문제를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희망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6만여 개에 달해

사회적기업을 국가정책으로 육성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총 고용기업체의 5퍼센트에 이르는 6만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사회적 경제는 유럽의 경제와 고용의 10퍼센트에 이른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5백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며, 1천개가 넘는 지자체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대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봉사와 사회공헌 문화가 보편화되고 탄탄한 지원책이 마련된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면 세제에서부터 자금, 경영지원과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길은 아직 멀어만 보인다.

우선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2.0'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정책은 '범정부적'이어야 한다. 비록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일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민사회 자발성과 창조성 적극 활용해야

환경, 빈곤, 실업, 범죄, 차별, 교육, 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문제는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경제나 고용정책으로 시작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총리실로 재편된 영국의 예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은 이제 어느 부처의 독점 영역일 수 없다.

자기 부처가 인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나 시장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부처이기주의를 깨뜨리는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2.0'의 첫번째 과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진작시키는 데도 노력을 기울

조선DB

사회적기업은 실업, 기아,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사진은 새터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인 '희망어패럴'.

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민사회와 민간기관들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미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해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구들의 전문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자발성과 창조성이라는 귀한 보석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2.0'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가진 이러한 보석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별이 되기보다는 밤하늘처럼 별을 빛나게 하는 넓고 든든한 무대를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의 성공한 정책은 '사례'일 뿐 '교본'은 못 돼

사회적기업은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 성장배경이 다른 만큼 우리에게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국가의 정책은 '사례'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교본'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청소년 범죄나 노숙자, 빈곤과 차별의 문제는 사회마다 그 근원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도 차별화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화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라민 뱅크'나 '피프틴 레스토랑', 그리고 '빅이슈' 등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자신들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것일 뿐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아야만 한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청년 사회적기업가 모델 등에서도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한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뿌려진 사회적기업의 싹이 이제 움트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2백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와 사회 진화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4.0'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전기로 정부 각 부처들이 서로의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며 우리의 것을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2.0'을 펴기를 기대해 본다. G

글·조영복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사회적기업연구원장)

日콘서트 예매 10만명… "요즘 젤 잘나가"

파격 퍼포먼스 · 강렬한 무대… 컴백 후 발표곡 모두 음원차트 정상에

2NE1이 첫 단독 콘서트의 연이은 매진으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팬들의 요청에 따라 공연 횟수를 늘리는가 하면 각종 음원 차트와 음악 순위에서 선두자리를 지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투어 첫 단독 콘서트 선행 티켓 예매에는 일본 팬 10만명이 몰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윌 아이 엠'이 러브콜도 보내오고 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던 2NE1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인 '놀자(NOLZA)'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당초 콘서트는 8월 27·28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26일 공연을 추가해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올해 2NE1은 컴백과 동시에 '돈 크라이', '론리', '내가 제일 잘 나가', '헤이트 유'에 이어 최근 발표한 '어글리'까지 5곡 모두 국내 KBS, MBC, SBS 등 각종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발표한 음원들이 모두 히트를 치며 벅스뮤직, 멜론, 싸이월드, 도시락, 네이버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2NE1의 콘서트는 팬들뿐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거웠다.

사전에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황민희 과장은 "양현석 사장조차 지인들의 콘서트 티켓 '공급'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의 애교 섞인 푸념은 비단 국내에서만 있는 반응이 아니다.

9월 19일부터 5차례 일본투어 공연

2NE1은 한류열풍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2NE1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2NE1은 오는 9월 19일부터 5회에 걸친 일본 투어 첫 단독 콘서트 'NOLZA in Japan'을 연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엄청난 팬이 몰리면서 공연을 9월 20일 1회 더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선행 티켓 응모에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몰리면서 일본 내에 불고 있는 2NE1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일본의 거대 기획사인 에이벡스와 함께 공동 레이블인 'YGEX'를 설립해 공격적인 일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2NE1의 리더 씨엘은 "세븐이나 빅뱅 선배들이 먼저 일본에 진출해 명성을 쌓아줘서 그 덕분에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일본에서 데뷔하게 됐다. '내가 제일 잘나가' 일본어판 뮤직비디오를 보면 한국말 가사와 함께 개량 한복도 등장한다"면서 "음반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멤버 산다라 박은 "국내에서도 2NE1의 홍보부장 역을 맡았는데 일본에서도 재밌는 홍보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공개 음원 5연속 올킬(all kill)'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달성한 2NE1의 앨범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미국 차트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2NE1은 '내가 제일 잘나가'로 지난 7월 25일 독일의 음악 사이트 'Viva 온라인 클립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와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대륙을 흔들었다.

유럽과 함께 美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두번째 TOP10 올라

전 세계인이 접속하는 유명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는 이미 1억 건 이상의 조회수와 추천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다. 7월 28일 공개된 2NE1의 '2nd Mini Album'은 미국 아이튠즈 일렉트로닉 앨범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8월 4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2NE1은 '월드 앨범 차트' 4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정규 1집 앨범으로 같은 차트에서 7위를 차지한 이후 두번째 기록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인 가수들의 앨범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의 '히트 시커스 앨범' 차트에도 34위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잘나가는 가수'임을 증명했다. 2NE1의 '아이튠즈'와 '빌보드 입성' 진기록은 아직 단 한 번도 미국 활동은 물론 현지 정식 프로모션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미국 프로모션과 활동에 들어서면 빌보드 앨범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NE1은 세계적인 팝스타이자 힙합 프로듀서인 '블랙아이드피스'의 윌 아이엠의 지원사격 아래 미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YG소속사 가수들의 개성과 능력에 관심을 보여온 '윌 아이 엠'은 특히 2NE1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NE1은 '윌 아이 엠'의 진두지휘 아래 앨범을 준비 중이다.

2NE1이 앨범 발매 등 본격적인 미국 활동에 들어가면 엄청난 열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음반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빼어난 외모만이 아닌 개성 넘치고 뛰어난 가창력 등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는 2NE1 한류열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

글 · 신서라 (데일리뮤직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아시아선 일본에 이어 두번째

美 빌보드에 'K팝 차트' 신설

세계적인 팝 음악 차트인 미국의 빌보드 차트가 한류열풍을 반영해 'K팝 차트'를 신설했다. 이름하여 '빌보드 K팝 핫100 차트'는 한국 가요만으로 1위부터 1백위까지 순위를 매긴 것이다.

빌보드가 아시아 음악 차트를 만든 것은 일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빌보드는 미국 외에도 일본·호주·영국·독일·프랑스 등 20개국의 현지 음악 차트를 발표해 오고 있다. '빌보드 K팝 핫100 차트'는 오프라인 음반 판매보다 디지털 음원 유통이 활성화돼 있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디지털 음원 판매량으로만 순위를 매기게 된다. '빌보드 K팝 핫100 차트'는 빌보드 잡지와 온라인 사이트, 빌보드코리아 사이트(www.billboard.co.kr) 등에 모두 실린다.

2백만 돌파 눈앞 〈마당을 나온 암탉〉 제작한 심재명 명필름 대표

"한국 애니의 가능성 열어 자랑스럽다"

지난 7월 27일 개봉한 〈마당을 나온 암탉〉이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나날이 새로 써 가고 있다. 기존 최고 기록(2007년 〈로보트 태권브이〉 디지털 복원판의 72만명)을 가뿐하게 갈아치운 데 이어 개봉 보름 만인 지난 8월 10일 '꿈의 기록'으로 불리던 1백만 관객을 돌파했다.

조선DB

심재명 대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아이가 부모에게 보여달라고 조르는 기존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원작 동화를 읽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함께 보는 영화"라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딸에게 좋은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제목 그대로 국내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깨고 날아올랐다. 지난 8월 24일 기준 1백70만 관객을 넘어 2백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것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손익분기점이 1백50만이다.

국내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는 1967년 신동헌 감독의 〈홍길동〉으로 문을 열었지만 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 새로운 흥행 신화를 기록하며 전인미답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첫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흥행에 성공한 심재명(48) 명필름 대표를 만나봤다.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는데 제작자로서 기분이 어떤가.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백만 관객 돌파도 의미가 있지만, 제작자로서는 사실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정도까지 관객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많았다.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흥행에 성공한 원인이 뭔가.

"1백만 권이 넘게 팔린 원작 동화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게 컸다(원작 동화는 황선미 작가의 작품으로 2000년 초판 발행 이후 지금까지 1백10만 부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다). 또 하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아이와 어른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게 주효한 것 같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아이가 부모에게 보여달라고 조르는 기존 애니메이션과는 다르다. 원작 동화를 읽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함께 보는 영화다."

명필름과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돌또기가 공동 제작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양계장에서 탈출한 암탉 '잎싹'과 청둥오리 새끼 '초록'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 의지, 꿈을 향한 도전, 가족애 등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는 명필름이 제작에 참여한 첫번째 애니메이션이다. 1996년 설립된 명필름은 〈접속〉(1997), 〈공동경비구역 JSA〉(2000),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등 그동안 실사영화만

제작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명필름의 30번째 개봉영화이면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첫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에 도전한 이유는 뭔가.

“실사영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은 목소리만 그 나라 언어를 입히면 된다. 진입장벽을 덜 느끼면서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애니메이션이다. 북미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가 전체 영화 시장의 40퍼센트, 일본은 20퍼센트나 되지만 우리는 겨우 0.3퍼센트다. 이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봤다. 영화 제작자의 입장은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딸(현재 중3)에게 좋은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애니메이션에서 흔한 권선징악 구도를 따르지 않는다. 결말도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 점이 스스로 부담되지는 않았나.

“원작의 깊이 있는 주제의식이 아이들에게는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원작에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들도 감동하는 것에서 가능성을 봤다. 시나리오 개발과정에서 영화적 재미를 살리기 위해 캐릭터를 창조하기도 했다. 원작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화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영화의 재미를 높이는 수다쟁이 수달 ‘달수’와 후반부 10분가량 펼쳐지는 청둥오리 파수꾼 선발대회는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와 내용이다.

기획부터 개봉까지 6년이 걸렸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 2009년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2년 연장된 셈이다. 원작이 훌륭해도 영화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에만 3년간 공을 들였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그동안 돈을 번 사례가 없다 보니 투자사나 배급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의 성공모델을 찾은 셈인가.

“이 영화 한 편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진영이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지만 유능한 제작자와 실력 있는 애니메이션 종사자, 주류 배급사가 힘을 합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도 수출된 걸로 아는데.

“9월 말 2천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그 정도면 중국에서는 중급 규모라고 하더라. 한국에서는 언론의 관심도 많고,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문소리, 유승호, 최민식, 박철민 등)들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흥행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양계장 안에 갇혀 알만 낳던 암탉 ‘잎싹’이 마당 밖 세상으로 탈출해 만난 청둥오리 새끼 ‘초록’이와 겪는 모험담과 모성애를 그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참 궁금하다.”

외국 시장까지 겨냥한 글로벌화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법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흥행되고 인정받은 다음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는 시장이 좁으니 해외를 겨냥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낯설어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애초에 해외를 겨냥해 대규모 제작비를 투여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가능성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애니메이션이 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애니메이션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시장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분야라 선진 외국에서는 매우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는 투자도, 제작도 활발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마당을 나온 암탉〉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5억6천만원을 투자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7억원을 지원 받았다. 초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다.” G

글 · 라동철 (국민일보 문화생활부 기자)

이난초 명창의 제자 강민지씨

"소통의 맛 전하는 감동의 소리꾼이 꿈"

세계로 나아가는 젊은이들만 G20세대가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열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가 G20세대다. 그런 점에서 어린 나이에 우리 국악에 입문해 오로지 국악 한길만을 걸어온 강민지씨도 빠질 수 없는 G20세대다. 국악을 통해 세계 무대로 날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소리꾼 강민지는

이난초 명창으로부터 동편제·흥부가·춘향가·수궁가 사사

현재 남원국립민속국악원창극단준단원, 전주판소리합창단 총무, 국악실내악단 나르샤 단원

수상 경력 제7회 국창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판소리 부문 일반부 1등, 제27회 남도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제34·35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반부 차상·차하

젊은 소리꾼 강민지(27)씨의 공연을 처음 접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몇 해 전 전북도청에서 있었던 야외무대공연에서였다. 공연 중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비에 관객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강씨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더니 즉흥적으로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곧은 모습과 목소리에서 나오는 비장함이 관객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들은 '사랑가'의 애절함이 비와 어우러진 속에서 자리를 지켰다.

전남 구례 태생인 강씨는 부모님께서 바쁘신 탓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평소 국악에 관심이 많으셨던 할머니가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일곱 살 손녀에게 권했다.

"너 소리 한번 배워볼래?"

그렇게 소리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그는 소리를 배우기 위해 할머니와 버스를 타고 남원까지 왕래했다.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가 소리 배우겠다고 아장아장 쫓아다니니 첫 스승님이셨던 강도근 선생님께서 절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간식거리부터 차 태워 보내는 것까지 친손녀처럼 챙겨주셨어요."

할머니의 권유로 일곱 살에 국악 입문

스승의 사랑이 더 깊은 배움의 길로 이끌었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비를 맞았다. 무엇보다 집안의 경제사정이 크게 어려워졌고, 급기야 소리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때 지금의 스승인 이난초 명창을 만나게 됐어요. '산 공부(산에서 국악 공부 하는 것)'를 하는 동안 어머니처럼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셨죠. 어느 날 몸이 훌쩍 커버린 제게 여성 속옷을 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꿈이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며 노력하고 노력하거라.'"

그는 그때부터 '포기보단 조금 더 노력하자'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버렸다고 한다.

강민지씨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국내와 세계로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로 공연에 임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생활비를 벌고자 수업 없는 시간에는 공연을 했다.

"국악을 하시는 어른들께선 소리 공부를 더 해야 할 시기에 공연을 그리 많이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스터디그룹 '나르샤' 통해 공연 활동도

생활과 공부 사이의 불안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바로 '나르샤'다. 나르샤는 2008년 창단된 국악 실내악단. 순 우리말로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악의 아름다움을 국내와 세계로 널리 날려 보내겠다는 의미를 지닌 나르샤는 국악 공부를 위한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발전해 정기공연도 하고 초청공연도 한다.

"공연이 있을 때면 주변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노력해요. 한 분이라도 더 우리 국악의 미를 느낄 수 있게요."

그는 외국인 앞에 서는 자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 혹여 자신이 전통국악의 아름다움을 잘못 보이진 않을까 우려해서다. 지난 8월, 인천대에서 나르샤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은 세미나 프로그램 중 하나였으며, 외국인 대학교수들이 주요 관객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그는 일찌감치 무대 준비를 마치고 직접 영어로 판소리 순서와 곡을 설명하기 위해 되짚어보고 있었다.

인천에서의 공연을 마친 강씨에게 '아리랑'을 잘 들었다고 말하자 "사실 저희 같은 국악 전공자는 '아리랑'을 부를 일이 적어요. 하지만 오늘 '아리랑'을 부른 것은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기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라고 곧은 모습과 목소리로 답했다.

강씨는 덧붙여 자신의 소리에 대해서도 말했다. "일곱 살 나이에는 사랑을 해봤을 리도 만무하고, 배고픔을 알기도 힘들었죠. 자라면서 배도 고파보고, 짝사랑과 이별도 해보니 '사랑가'의 애틋함도 '흥부가'의 애절함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소리가 '기교의 음악'이 아닌 '감동의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듣는 이와 부르는 이의 감성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래야말로 한국의 전통음악이에요. 제가 평생에 걸쳐 하고 싶은 소리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감동의 소리예요."

"자부심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갈채"

그는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 용기를 내어 삶의 무대에 오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부심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 얼마나 잘 불렀는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갈채인 것 같아요. 분명 우리 세대 모두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G

글 · 안시준 (연세대 경영학과 4년)

조선DB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이전청사 착공식을 갖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진은 도로공사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청사 청사진.

'첨단도로교통' 신산업 뿌리 내린다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청사 착공… 교통허브로 도약 기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청사 착공식이 있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해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북김천혁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들이 연이어 새 청사 착공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5일 경북김천혁신도시에서 이전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정사업조달서비스가 이미 청사를 건설하고 있으며 9월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청사 건립이 시작된다.

한국도로공사 이전청사 착공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전이 예정된 12개 공공기관장들은 혁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희망다짐 서약'을 했다.

혁신도시는 지역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백15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북김천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건설할 예정이다.

도로교통 R&D · 도로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특화

한국도로공사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도로교통산업'이라는 새

조선DB

지난 8월 25일 경북김천혁신도시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운데)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청사 이전 착공식이 열렸다.

로운 산업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능형 고속도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교통 R&D와 도로설계 엔지니어링 산업을 특화하고 첨단 자동차 부품과 차량 통신시스템 등 IT교통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교통 관련 특성화과를 육성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교통산업의 발전으로 지역대학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타지역의 우수인재들의 유입도 바라볼 수 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지방이전으로 2천2백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천2백명의 인구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사 건설 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된다. 지역건설업체가 대거 동참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전청사 건설은 지역건설회사가 총 공사비의 40퍼센트 이상을 공동도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천2백68억원인 총 공사비 중 최소 5백7억원 이상은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하게 된다. 청사 건설이 본격화되면 지역 일자리도 상당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올해 80개 공공기관의 이전청사 착공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80개 공공기관의 이전청사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를 조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이전청사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9개가 준공됐고 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한국주택보증 등 18개가 시공 중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중앙공무원연수원의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LH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복지시설 주민에 개방, 지역발전 이바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일을 하는 공기업이다. 고속도로를 신설, 확장, 유지, 관리하는 것은 물론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로공사의 몫이다.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있다"며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세계적인 도로교통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도로공사 신축 청사는 친환경 설계가 적용됐다고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를 테마로 정했습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기구 등이 도입됩니다. 또 청사에 입주하는 어린이집은 공기업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설계기법을 도입해 유지관리비용이 일반 아파트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표준건물 대비 40퍼센트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도로공사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병원과 체력단련실 등 이전청사의 복지시설물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입니다. 산업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대학과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기업,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이전에 대한 직원의 동요나 반발도 있을 겁니다. 이주와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요.

직원들이 이전 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와 학교 등을 서둘러 지어 직원들이 이전 후에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조성되면 그에 맞는 후생복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 외에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일반매각에서 유찰된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으로 혁신도시 안에 1만6천 세대의 아파트를 착공하고 입주시기에 맞춰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 1개교 이상 총 22개교(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를 우선 설립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영주부석장, 1973

추억에 대하여… 흑백의 속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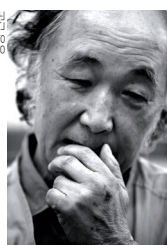
주명덕사진전 〈조국, 비록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사라지는 한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온 주명덕(71) 작가가 사진작업 50년 기념 전시를 마련했다. 〈My Motherland(나의 조국)-비록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가 9월 15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주명덕 작가와 대림미술관이 4년 동안 진행한 〈도시정경〉(2008년) 〈풍경〉(2009년)에 이은 세번째 사진전으로, '주명덕 프로젝트'의 마무리 작업이다.

안동번남가, 1979

이번 주명덕사진전에는 1970~80년대 한국 풍경과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있는 사진 1백36점이 전시된다. 모두 흑백사진이다. '주명덕 블랙'이 담긴 사색의 소산물이다. '주명덕 블랙'은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주석 명지대 교수가 지은 이름인데, 주명덕 브랜드를 일컫는 상징어로 통한다. 주명덕 작가의 사진 속에서 '블랙'은 그냥 블랙이 아니다. 작가의 눈과 가슴에서 묵묵히 되새김질된 블랙은 작가의 하고픈 말을 깊은 침묵으로 보여준다.

주명덕 작가(사진)는 "같은 블랙도 인화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대상을 향한 시선에 따라 농축된 블랙이 나오는데, 각각의 사진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블랙이 숨 쉬며 존재하지요"라며 이번 작품을 설명했다.

경향신문

흑백사진의 내용과 톤에 따라 흑백의 대조가 다양한 색의 조화로 화려하게 다가온다. 작가가 직접 인화하는 손맛도 무게를 더한다. 40~50년 전의 우리나라 풍경들이 서럽고 아프기보다 애잔하고 다정한 이유도 무수한 흑백의 속삭임 때문이다.

이번 사진전에서 작가는 어머니의 고향과, 자신이 보듬고 있는 풍경을 통해 삶의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흔적의 미학을 보여준다. 사진속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갈' 수 없어도 '돌아볼' 수는 있는 그리움의 보고서인 셈이다. 전통 주거공간의 불편함보다 옛 공간의 따뜻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주명덕 작가의 작품이 멋과 이야기(기록)를 함께 전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전시 기간 중에는 1960~70년대의 주명덕 작가 작품과 최근의 '장미' 시리즈 등 7백여 점의 작품과 사료가 담긴 영상전시도 병행된다.

그는 "일생 가장 화려한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지금'"이라며 "무엇이든 과장되게 내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가장 멋지다"고 했다.

민족, 고택, 자연 등 점점 사라지는 한국적 모습을 작품으로 다져온 그의 철학은 뜨겁고 명쾌하다. 그의 작품 앞에선 사진설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작가의 생각을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껴안으면 된다. G

글 · 유인화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문의 대림미술관 ☎ 02-720-0667 **입장료** 성인 5천원

내달 여는 '문화계 다보스포럼' 국제 문화소통포럼 기획한 최정화 교수

"문화 리더들이 한국 문화에 빠질 겁니다"

박근희 기자

CCF 2011을 기획, 총괄하는 최정화 교수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기해 열린 C20 문화정상회의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CCF 2011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유럽엔 다보스포럼이, 북미엔 TED가 있는데 그동안 아시아가 주축이 된 그 무언가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문화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CF 2011'을 시작으로 문화소통 포럼을 정례화해 아시아 문화강국인 한국이 이끄는 세계적인 문화포럼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해외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해 온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의 이사장이자 'CCF 2011'을 기획·총괄하는 최정화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말이다. CCF 2011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CICI가 주최하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소통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요 20개국의 문화 리더 15명을 초청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고 초청한 문화 리더들과 함께 쌍방향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지난해 C20 문화정상회의 성공으로 포럼 자신 있게 기획

최정화 교수는 이번 포럼에 대해 "CCF 2011 행사 기간 동안 문화강국 대표로 참가한 이들은 자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귀국 후 각각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 문화소통 포럼임에도 세계 각국의 쟁쟁한 문화 리더들이 참가를 통보해 온 것도 관심을 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문화계 리더는 빌리 보그너 독일 '보그너' 그룹 회장 겸 전 뮌헨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아마데오 스키아타렐라 이탈리아 로마건축가협회장, 뉴욕 최고 문화예술 명소인 '거버너 아일랜드'의 레슬리 코치 이사장,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인 러시아 대표작가 아나톨리 김 등 14개국 대표 15명(8월 22일 참석 확정자 명단 기준)이다.

"지난 4월 포럼 기획 단계에 '라인 업'했던 대부분의 인물이 참가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 문화 리더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최 교수의 말이다.

"준비 기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그는 "포럼 기간 동안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한국 문화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CCF 2011에 참가하는 문화계 리더들은 4일에는 창덕궁 후원을 방문하고 리움미술관과 전통 뮤지컬 '미소' 공연을 관람한다. 5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외규장각 의궤 및 궁중행사 장면을 생생히 재현한 '반차도' 영상을 관람한 후 한국가구박물관도 방문한다.

9월 4일부터 사흘간 한국 문화 체험 후 토론

9월 5일 저녁에는 고 윤보선 대통령 고택에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국인의 의식주 문화를 체험한다. CCF 2011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9시에 여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이틀 동안 오감으로 체험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국 문화와 비교해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궁극적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려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 문화 정상들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국민들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박근희 기자

허리·주먹 굽히고 펴고 신장과 심장이 "튼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의 동작을 운동이나 명상으로 연결시켜 그 동작들에 집중하면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 속 운동은 시간 절약과 함께 일상 속 노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태극권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잠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온몸과 마음을 다듬는 운동이다. 생활 속 운동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강화한다면, 태극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총체적으로 풀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뻣뻣하게 서 있어 지친 머리와 목, 허리를 화끈하게 풀어주고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신체의 말단부위들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동작들을 배워보자. G

허리를 굽혀 발을 감싸며 신장을 단련하자

'허리 굽혀 발 감싸기' 동작이다. 머리 위로 뻗어 올린 손이 힘을 쭉 뺀 온몸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서 시원하게 다스려지는 등줄기를 체험할 수 있다. 충분히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의 이동은 몸속 장기를 원활하게 자극하며, 특히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과 활력보충에 도움을 준다.

1 두 발을 모아 편안히 선 자세에서 양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뒤, 양손을 뒤로, 위로, 앞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 올린다.

2 양손을 편 채 숨을 내쉬며 허리를 밑으로 굽혀 양 손 끝을 지면에 살짝 댄다.

3 허리를 약간 들어올렸다가 왼쪽으로 돌려 다시 굽힌다.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로 들었다 굽히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왼쪽으로 되풀이한다. 12번 들었다 굽힌다.

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인 이찬 선생이 누구나 쉽게 태극권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CD가 함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동아E&D 펴냄 · 1만4천5백원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심장이 튼튼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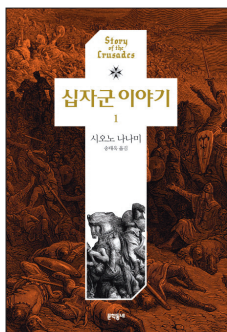
세상에는 많은 운동이 있지만, 온몸에 힘을 빼고, 신체의 최종 말단부위를 다스려주는 운동은 그리 많지 않다. 모세혈관의 끝까지 피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근본적으로 심장이 튼튼해진다.

팔에 힘을 빼고 하는 태극권을 약 30분 수련하고 나면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몸의 맨 끝까지 혈액이 원활히 공급된 결과이다. 온몸의 힘을 빼고 손가락 끝을 풀어주는 동작을 따라 해 보자.

1 두 발을 모으고 선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린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 관절도 약간 느슨하게 떨어뜨린다.

2 주먹을 쥐었다 폈다 50회 반복한다. 너무 꽉 쥐거나 너무 느슨하게 쥐면 안 된다. 손가락 끝부터 말아쥐면서 심장의 펌프질을 느껴보자.

〈십자군이야기1〉

유럽판 삼국지?… 편향된 시각 불편

시오노 나나미 지음
문학동네 펴냄·1만3천8백원

본디 유명 저자가 책을 내면 뒷말이 무성한 법이다. 〈로마인 이야기〉로 성가를 올린 시오노 나나미의 신작 〈십자군 이야기〉 국내 출간에도 화제가 많았다.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저작권료가 천정부지로 솟았다는 말이 있고 번역자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어찌 보면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이지만, 워낙 팬이 많은 저자인지라 오히려 신간 홍보에 도움이 되는 양상이다.

필자는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관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로마인 이야기〉부터가 그렇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목적을 뚜렷하게 밝혔다. '왜 일본은 제국건설에 실패했을까. 그렇다면 제국을 세우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로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는 무엇일까'가 바로 그것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여러 장점,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 가는 능력, 역사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 특히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그만큼 매력적인 평가 등이 있더라도 그 점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십자군 이야기〉는 어떨까. 먼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십자군 전쟁을 요령껏 잘 정리하고 해설한 장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특히 이 전쟁이 알려진 대로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만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밝힌 점은 칭찬할 만하다.

십자군 전쟁을 제창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부터 그랬다. 겉으로야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고 했지만, 속내는 황제와 벌이는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치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 십자군 파병을 원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는 아예 음모가 수준이다.

십자군이 점령한 영토를 비자틴제국의 영토로 병합하려는 속내가 있었으니, 정말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 했다.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탈리아 항구도시와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경제 이익과 관련된 협약이 이루어졌다. 책을 조금만 읽어 보아도 이 전쟁이 얼마나 추악한 목적을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로 포장했는지 눈치챌 수 있다.

그럼에도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를 읽는 내내 불편했다. 가장 심하게 든 의구심은, 혹 저자가 이 전쟁 이야기를 유럽판 삼국지의 소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었다.

물론 전쟁을 이야기로 풀어 가다 보면 전투 이야기를 자세히 아니할 수 없으니, 전술을 설명하고 승장과 패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심각한 의미가 이런 유의 이야기로 희석되고 거리를 두고 즐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다.

너무 엄숙주의적인 평가라 하지는 말자. 오늘, 우리가 왜 십자군 전쟁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아직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이 탈레반의 테러에서 비롯되었고, 그 성격이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의 충돌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놀랍게도 역사가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니, 먼저 있었던 충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의 심각한 의미가 이야기 거리로 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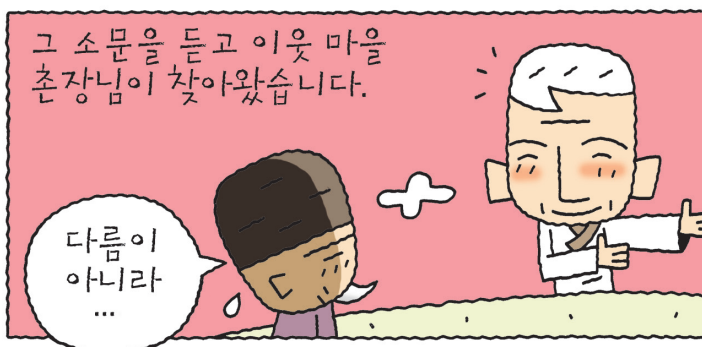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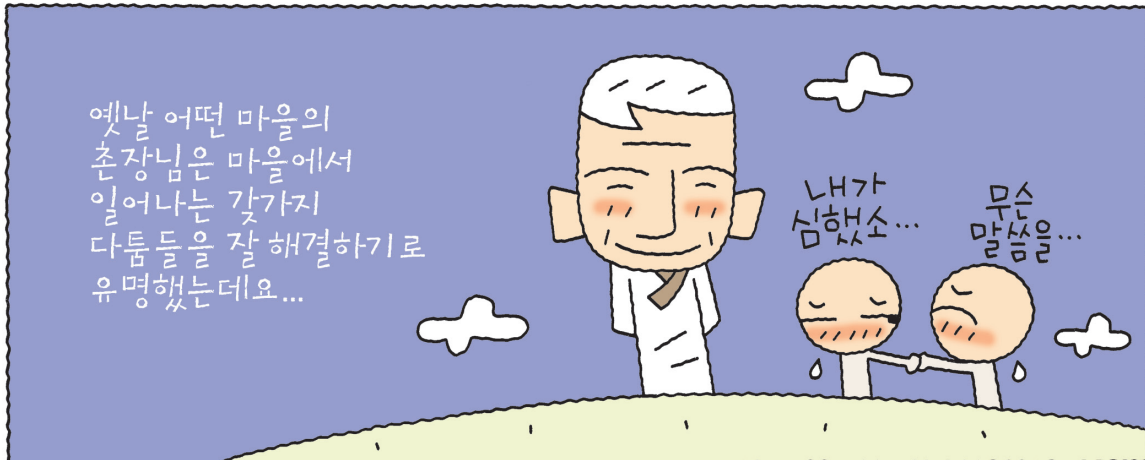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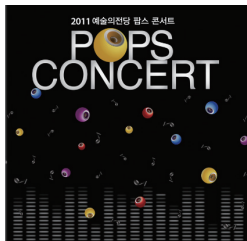
책을 읽으면서 과연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문제의식을 품고 책을 썼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특별히 십자군의 1차원정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지라, 그 평가에서 십자군은 일치단결하여 현명하게 처신한 것으로 나오고, 이슬람 쪽은 작은 이익에 눈멀어 쉽게 분열하는 것으로 나온다.

특유의 인물평에서도 십자군에 참여한 제후들에 대해서는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슬람 쪽은 양적으로도 부족하다.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십자군 전쟁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전쟁은 인간이 여러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할 때 떠올리는 아이디어다." 책의 첫 구절이다. 맞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더라도 전쟁은 그 이면에 추악한 목적을 숨기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결국에는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글·이권우 (도서평론가)

명판결의 비결

글과 그림 · 최영순

참된 정사(政事)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먼 데 있는 자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 논어

콘서트 **예술의전당 〈팝스 콘서트〉** 70~80년대 대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산했던 '대학가요제'의 대표 수상곡들이 클래식 선율로 옮겨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인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떡해'를 비롯해 대학가요제 히트곡의 클래식 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콘서트는 기존의 팝스콘서트와는 달리 가요의 멜로디를 소재로 삼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악기들의 클래식 협주곡으로 재탄생시켜 선보인다.

일시 9월 25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2-580-1300

영화 **추석개봉영화** 추석을 전후해 하반기 기대작들이 솔솔 개봉한다. 우선 〈푸른소금〉이 9월 1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송강호와 신세경이 연인으로 호흡을 맞춰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챔프〉는 시력을 잃어 가는 기수 승호(차태현)와 절름발이 경주마 우박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경주마 루나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화제가 되고 있다. 강풀 원안의 영화 〈통증〉은 통증을 못 느끼는 남자 남순(권상우), 작은 통증에도 민감한 여자 동현(정려원)의 이야기를 다룬다. '가문시리즈' 4편 〈가문의 수난〉은 홍 회장(김수미) 일가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는다.

〈푸른소금〉 9월 1일, **〈챔프〉** 9월 7일 개봉 **〈통증〉** **〈가문의 영광〉** 9월 8일 개봉

전통극 **광대놀음극 〈아비 찾아 뱅뱅 돌아〉** 한국의 전통기예 버나놀이로 펼쳐지는 연극 〈아비 찾아 뱅뱅돌아〉가 막을 올린다. '버나놀이'를 전면에 내세워 연희극을 창작했다. 서커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글링, 이집트 전통 춤인 '수피댄스' 등 뱅뱅 도는 시각적 재미를 극대화했다. 극의 음악들은 동해안별신굿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졌으며, 20여 가지의 악기로 연주되는 전통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사운드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일시 9월 16~18일 **장소** 남산국악당 **관람료**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의** 1544-1555

사진 서울드럼페스티벌

이번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는 국내외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국제타악경연대회도 열린다.

두드리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다!

〈서울드럼페스티벌〉

서울시청 앞 광장인 서울광장에서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드럼페스티벌〉이 열린다. 타악경연대회는 실력 있고 끼가 넘치는 타악 인재들에게 예술의 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타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9월 3~4일에는 축제에 참가하는 타악 아티스트들의 사전 홍보 공연인 '프린지 공연'이 펼쳐진다.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는 2010타악아트마켓 우수 참가팀의 기획공연이 9월 14~21일에 펼쳐진다. 22일에는 세계 서양 타악 예술인들의 타악 창작 공모전인 '세계창작향연'이 열린다.

이번 향연에서는 한국과 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초청된 호주 타악팀 시너지(Synergy)가 직접 연주한다. 국내외 유명 타악팀으로 구성된 '예술타악프로그램'(9월 23일)과 전통타악, 퓨전타악, 서양타악 등 모든 장르의 아마추어의 참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마추어 타악경연대회'(9월 24일)가 준비된다.

경연의 중간 중간 프로 공연팀의 격려 공연도 열린다. 세계 6대륙의 타악기 전시 체험전과 어린이들이 공연단에게 사물놀이 가락을 배우는 '사물놀이 스쿨', 어린이들이 재활용 악기를 만들고 다양한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들기 교실, 폐막공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G

일시 9월 3~24일 **장소** 서울광장,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의** 02-757-0303

빛으라 그러면 다시 찾을 것이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한국도자의 중심지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에서 2년마다 찾아오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한국의 도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문화행사다.

이천에서는 도자테마파크 '세라피아'가, 광주에는 조선분원의 역사가 있는 '곤지암도자공원'이, 여주에는 도자쇼핑문화관광지 '도자세상'이 열린다.

도자예술과 도자산업이 축제 형식으로 접목돼 매회 3백만 내외의 관람객이 찾는 도자 관련 국제행사다. 올해 비엔날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대중 참여 기회를 확대해 국내외 도예가들과 일반 대중이 일상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재발견할 수 있다. 세계 71개국으로부터 응모, 우수 입상작 1백60점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도예가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 초대전도 마련돼 있다.

학술 및 창작 교류를 위한 국제 도자워크숍과 국제 도자포럼, 강연 등 프로그램과 도자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조형물 제작 워크숍 세라믹 아트윅, 팔만대장경 상감체험, 도자 및 생활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구이구이 축제, 공방 축제, 장작가마 소성 축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글 · 김선영 인턴기자

일시 9월 24일~11월 22일 **장소**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입장료 8천원 **문의** 031-631-6501

한국도자재단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이천에서는 도자기와 놀고, 광주에서는 도자기를 보고, 여주에서는 도자기를 살 수 있다.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뮤직인마이하트	문화예술전용극장CT	9월 30일까지	053-762-0000
아가씨와 건달들	LG아트센터	9월 18일까지	02-2005-0114
스프링 어웨이크닝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9월 4일까지	02-744-4334
피맛골연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9월 10일까지	1544-7744
연극			
체코-마크로풀로스의 비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월 30일 ~10월 1일	02-2280-4124
우어파우스트	명동예술극장	9월 3일 ~10월 3일	1644-2003
우먼인블랙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9월 10일까지	1544-1555
라이어	해피씨어터	9월 6일 시작	02-747-2070
콘서트			
조영남 쎄시봉 그 후 45년 제주 콘서트	제주 아트센터 대극장	9월 25일	1600-6089
이은미 전주콘서트	전북대삼성문화회관	9월 3일	063-220-8282
송대관,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	9월 18일	061-270-9215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대진 리사이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9월 25일	02-2658-3546
조수미 파크콘서트	올림픽공원 88마당 야외무대	9월 24일	1577-5266
오페라/무용			
중국 랴오닝발레단 마지막 황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월 20~21일	02-2280-4124

8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8월 14일~8월 20일

	곡명	가수
1	TV를 껐네… (Feat. 윤미래, 권정열)	리쌍
2	So Cool	씨스타
3	안아줘요	10cm
4	부산여자	비
5	UGLY	2NE1
6	그것만이 내 세상 (들국화)	박정현
7	Mr. Simple	슈퍼주니어
8	홀로 된다는 것 (변진섭)	김범수
9	블링블링	달샤벳
10	Good-bye Baby	miss A

소통과 영합의 잣대, 진정성

영합(迎合)이라는 단어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좇음'과 '서로 뜻이 맞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대개의 경우 영합은 전자의 의미로 쓰인다.

'영합'을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소통'과도 의미가 통한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에 유명 소설가 14명을 릴레이 인터뷰한 적이 있다. 대개 문학상을 받고 문단에서 인정받는 분들이었는데 그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세 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거의 모든 분이 거론한 단어가 '소통과 영합'이었다. 요즘 출판시장이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1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뷰에 응한 소설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작품의 주제를 '소통'이라고 했다. "왜 소설이 안 팔리는가"라는 질문에는 대개의 작가가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판매를 위해 대중과 영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때도 인기가 높았던 이외수 선생에게 "작품이 많이 팔리는 건 대중의 기호에 영합했기 때문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대중은 좋은 책을 고를 줄 모른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학은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어서 가슴으로 감동받는다. 대중의 가슴이 천하다는 인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중의 기호에 영합한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니다. 아예 대중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작품들도 판매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마와 영화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한다. 대중과의 소통을 지상명제로 삼고 작품을 완성해 시장에 내놓지만 며칠 만에 명암이 갈리고 만다. 최근 대기업이 거액을 들여 제작한 영화가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가 하면 전혀 흥행을 예상하지 못했던 소품이 성공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그간 흥행과는 무관했던 단편영화와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성과를 거두는 이변도 일어났다.

좋은 작품이라고 다 각광받는 건 아니고,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다고 다 좋은 작품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둔 작품들을 보면 대중이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체 그게 무엇인지,

일러스트 박용인

대중의 가슴을 아는 것이 영합인지 소통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소비주체인 대중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대중에 아첨하며 좇을 게 아니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금 수많은 작가와 제작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중이다. 대중의 가슴을 아는 것이 영합인지, 소통인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대중을 한쪽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수단을 교묘히 이용해 선동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추구하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비주체인 대중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좇을 게 아니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소통과 영합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글 · 이근미 (소설가)

대한민국의 영웅! 당신을 응원합니다!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군 장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참여기간 : 9월 1일(목)~ 9월 20일(화)

참여형식 : 편지, 엽서, 동영상 메시지 등 제한 없음

참여대상 : 학생 및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 병무청 감사편지 보내기 이벤트(www.mmaevent.kr) 또는 전국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1588-9090)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문화가 흐르는 강이 됩니다.

강따라 사람따라

공모내용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수변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사진
제출기간	2011. 9. 15 (목) ~ 10. 31 (월) 18 : 00
공모분야	일반사진, 창작사진
제출방법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 (www.cultureriver.com) 참고
발표	2011. 11. 25 (금)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총상금 4,000만원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cultureriver.com